Información 한Gua 한 과 정 보

2025년 9월 12일 [7.21] 금요일

한과정보

기준환율($1)	
₩1,388.00	Q7.656
한국송금시	살때
₩1,374.60	Q7.82

대사관 : 2382-4051~54 / embcor.gt@mofa.go.kr / 긴급:4013-5184 / 한인회:2445-6461

국회, 독립 204주년 기념식 개최
아레발로 대통령은 불참

과테말라는 오는 9월 15일 독립 204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다양한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국회는 9월 11일(목) 특별 본회의를 열고 독립기념식을 거행했다. 하지만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대통령은 이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의회를 대표해 연설에 나선 네리 라모스(Nery Ramos) 국회의장은 “자유는 매일 쟁취하는 것”이라며 단결과 포용을 강조했다. 그는 Jutiapa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정치인의 책무를 강조하며 “더 정의롭고 번영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부문이 함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라모스 국회의장은 또한 최근 과테말라의 정치·사회적 현실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미 분열이 가져오는 피와 고통, 발전 지표의 후퇴를 경험했다. 〈6페이지에서 계속〉

새로운 소식

사랑의 교회 청년부 찬양집회 (23페이지 참조)

9월 15일(월)은 독립기념일로 휴간 합니다

Óptica Exprés
ZONA 10
C.C. ESKALA ROOSEVELT
6TA AV. LOS CAPITOL Z.1
C.C. SANTA CLARA, VILLA NUEVA
BLV. SAN CRISTOBAL, PLAZA FUTECA
5575-1090 2258-9667
Ópticaexprés

eclipse & mariposa
1F Restaurante
BAR
가족노래방
2F Karaoke
36 av 0-37 Zona 7 Col. Toledo
tel. 5633-1949


K-Cosméticos
MANGO MART
스킨케어부터 색조까지 완벽하게! 선물용 세트도 풍부하게!
항상 새로운 K-뷰티 제품 입고!
최신 인기템, Mango Mart 에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K-Mango Cosmético)
100% 한국 정품 화장품 수입
Guatemala에서 만나는 진짜 K-뷰티!
문의 / WhatsApp
502-3041-6829
(WhatsApp Business
– 제품 정보 & 사용법 문자
문의 가능 / 한글 + 스페인어 제공)
502-3042-0578
(일반 전화 문의)
SNS에서도 확인하세요!
· Instagram: @k.mangomart · WhatsApp Business: 502-3041-6829
· TikTok: @k.mango.cosmetico · Facebook: Kmango Cosmetico
매장 위치 2AVE. 34-15 ZONA 7 LOCAL D
(SHINE KOREA 슈퍼 안, 미로미용실 옆)
모든 제품에는
• 상세한 설명 • 피부에 좋은 효능 • 사용법 단계별 안내 • 연령별·피부타입별 추천 포함
지금 WhatsApp으로 카탈로그 클릭하세요 : +502-3041-6829

(-2-)


Silk®
실크
Korean Market
NEW
별빛 청하
SAERO CHEONGHA
NEW
백세주
BEKSEJU
NEW
복분자
BOKBUNJAJOO
청하
百歲酒
복분자
月梅
청매
새로
새로
봄이
NEW
새로
SAERO ORIGINAL
NEW
새로 살구
SAERO SALGU
15 avenida 6-01, zona 13
Centro Comercial Century Plaza
Local
206

BAUMDEX | 바움덱스

문의전화 : +502-4640-1227

안마의자 전상품
보상판매 & 렌탈서비스

수고했어, 오늘도.

고품격 안마의자
DEX | 덱스

BEST SELLER



모두를 위한 안마의자
LeBlanc | 레블랑

BEST SELLER



할인혜택
구매고객께는, 제품별 특별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보상판매
중고제품 반납하시면, 제품에 따라 할인해 드려요.

렌탈서비스
구매가 망설여지신다면, 매월 부담없는 가격으로 렌탈하여 사용해 보세요.

baumdex.com

baumdex.gt

고기전문식당 RESTAURANTE HAN GUK GWAN

한국관



냉면전문식당 그외 다양한 메뉴 / 넉넉한 주차공간 보유 (대리운전 콜 서비스)

연중무휴 / 이사삼구-오구이칠 / 2a. calle 33-14 Z.7 calzada mateo flores

배달 (2인분 이상 무료)

맛 집

오리 한방 수육과
백숙 개시

8월부터
일요일 영업합니다
월요일 휴무합니다

안창살
삼겹살
항정살
LA갈비
돼지양념목살
훈제오리 NEW

2시간 전 예약메뉴

보 쌈
등갈비 김치찜
닭백숙
닭도리탕

사시미
춘천맛집닭갈비
복찜
복지리
불향 쭈삼 NEW
불향 쭈꾸미
철판닭갈비
물회
회덮밥
회무침
골뱅이무침
생선탕
냉채족발,족발
해물탕,찜

설렁탕
감자탕
돼지국밥
도가니탕
꼬리곰탕
우거지갈비탕
삼계탕
(흑마늘,들깨)
제육덮밥
불고기덮밥
돈까스
청국장
생선튀김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연락처 : 2441-7783, 5458-8362, 5477-4922(카톡가능)
1calle 35-66 Zona 7 Colonia Toledo

단결할 때 강하다는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패 척결, 원주민 포용, 민주주의 강화를 과제로 제시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과테말라를 중심에 두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올해 기념식에서 가장 눈에 띈 점은 아레발로 대통령의 불참이었다. 그는 국회의 독립기념식 행사의 귀빈으로 초청됐지만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대법원(Corte Suprema de Justicia), 헌법재판소(Corte de Constitucionalidad) 재판관들과 외교단 및 각계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 도중 Winaq당 소속 소냐 구티에레즈(Sonia Gutiérrez) 의원은 자신의 의석에 ‘범죄화와 불안, 과테말라는 애도 중!’이라는 문구와 검은 리본이 달린 피켓을 걸어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이는 국가의 억압 속에 고통받는 대다수 국민, 특히 원주민과 치안 문제를 반영한 정치적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국회 기념식을 시작으로, 오는 9월 15일 수도 과테말라시티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학생 밴드들의 거리 퍼레이드, 문화 공연, 공식 행사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독립 204주년은 단결과 민주주의, 정의를 위한 목소리가 다시금 강조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Soy502

독립기념 횃불 달리기 12일 주요 혼잡 구간은?

과테말라 독립 204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가 9월 12일(금요일) '횃불 점등식'으로 시작됨에 따라, 과테말라시 주요 도로의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Emetra도 12일 두 차례의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metra의 아밀카르 몬테호(Amílcar Montejo) 국장에 따르면, 여러 학교 학생들이 수도 곳곳에서 횃불을 들고 행진하는 행사로 인해 정오 이전에 첫 번째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두 번째 혼잡은 오후부터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녁 7시경부터 더 많은 시민들이 오벨리스크 광장(Plaza Obelisco)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이 행사는 다음 날 새벽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오벨리스크 광장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 도로들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신제품 입고



월-토 9:00 am - 7:30 pm

3076-2843

NEOMART

15 AVENIDA 7-79 ZONA 13



▲ Avenida Reforma
▲ Avenida Las Américas
▲ Bulevar Los Próceres
▲ Bulevar Liberación

몬테호 국장은 시민들에게 출퇴근 시간대 이동을 피하거나 가급적 집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 부득이하게 해당 지역을 통과해야 할 경우, Periférico, Calle Martí, Calzada La Paz, Bulevar La Asunción 또는 Centro Cívico 등 우회 도로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Soy502

백일해 환자 증가세 계속 43%가 수도에서 발생

최근 백일해(tos ferina)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사례의 43%가 수도인 과테말라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세 미만 영유아 감염 비율이 높아 보건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보건사회부 역학 전문의 Ericka Gaitán 박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158명의 백일해(tos ferina) 환자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 대다수가 5세 미만 아동이다. 특히 과테말라시에서 발생한 43%의 사례 중 72%가 5세 미만 아동으로,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 마르코스 지역 병원 당국은 최근 병원 내에서 2건의 백일해(tos ferina)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첫 번째 환자는 지속적인 기침 증상을 보인 의료진이었으며, 두 번째 환자는 중증 상태로 입원한 1세 미만 영아였다.

가이탄 박사는 전국적으로 보고된 백일해(tos ferina) 사례들은 개별적인 발병이며 항생제 치료로 통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세 미만 영아 환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어린아이들의 백신 접종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상민 클리닉도 “백일해는 예방접종으로 막을 수 있는 질환”이라며 영유아와 임산부의 예방접종을 강력히 권장하고 특히 6개월 미만 영아는 스스로 예방이 어려운 만큼, 부모와 가족이 함께 예방접종을 받아 감염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방접종은 국립병원과 지역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Soy502

19대 한인회 2025년 7월 재무 보고서 (4)

날짜	내 역	수 입	지 출	잔 액	
				Dollares US$	Quetzales Q
	전월 이월금			US$ 2,595.25	Q 64,936.76
2025-07-02	청소용역 지불 (2일분 - 1명)		Q 300.00		Q 64,636.76
	한인회 후원금 (농심 이경수사장님)	Q 5,000.00			Q 69,636.76
2025-07-04	교통비 (직원 : 사무실-Paiz-office depot)		Q 90.00		Q 69,546.76
	생수 2박스 및 세제 구입		Q 161.30		Q 69,385.46
2025-07-05	청소용역 지불 (1일분 - 1명) 토요일		Q 150.00		Q 69,235.46
2025-07-08	Monserrat 건물 임대료 (구 한글학교)	Q 5,000.00			Q 74,235.46
2025-07-09	청소용역 지불 (2일분 - 1명)		Q 300.00		Q 73,935.46
2025-07-12	청소용역 지불 (1일분 - 1명) 토요일		Q 150.00		Q 73,785.46
2025-07-15	쓰레기 수거 비용		Q 110.00		Q 73,675.46
	한인회 후원금 (Textiles Chang Woo 박창원 부사장님)			US$ 100.00	Q 73,675.46
2025-07-16	청소용역 지불 (2일분 - 1명)		Q 300.00		Q 73,375.46
	행사용 앞치마 50개 구매 (한국:모시 조각보 꽃자수)		Q 3,000.00		Q 70,375.46
2025-07-19	청소용역 지불 (1일분 - 1명) 토요일		Q 150.00		Q 70,225.46
2025-07-23	청소용역 지불 (2일분 - 1명)		Q 300.00		Q 69,925.46
2025-07-26	청소용역 지불 (1일분 - 1명) 토요일		Q 150.00		Q 69,775.46
	한인회 후원금 (김연숙 18대 회장님 6월.7월)	Q 4,000.00			Q 73,775.46
	한글학교 운영 분담금 (2025.7월분)	Q 4,000.00			Q 77,775.46
2025-07-28	한인회 후원금 (Plastic Uni 서묵회장님)	Q 2,000.00			Q 79,775.46
2025-07-29	한인회 후원금 (최경영수석부회장님)	Q 2,000.00			Q 81,775.46
	한인회 후원금 (8.15행사비 - 민주평통)	Q 3,000.00			Q 84,775.46
	한인회 후원금 (8.15행사비 - 자영회)	Q 3,000.00			Q 87,775.46
	한인회 후원금 (자영회)	Q 2,000.00			Q 89,775.46
2025-07-30	청소용역 지불 (2일분 - 1명)		Q 300.00		Q 89,475.46
	변호사 비용 (한인회장 대표 변경 : 취소및등록)		Q 1,700.00		Q 87,775.46
	교통비 (직원 : 사무실-Zona4) 대표등록서류		Q 152.00		Q 87,623.46
	식사비 (Migracion) - 외국인세 한인회에서 취합납부 미팅		Q 374.00		Q 87,249.46
	IUSI 비용 (2025년1분기) Monserrat		Q 166.13		Q 87,083.33
	IUSI 비용 (2025년1분기) 한인회관		Q 10,577.50		Q 76,505.83
	전기세		Q 1,985.95		Q 74,519.88
	인터넷 사용료		Q 704.00		Q 73,815.88
	경비 용역비		Q 8,709.04		Q 65,106.84
	경비회사 (Retencion de seguridad)		Q 406.96		Q 64,699.88
	직원 Bono 14 (Ana Jeronimo)		Q 3,973.00		Q 60,726.88
	직원급여 (Ana Jeronimo)		Q 3,973.00		Q 56,753.88
	2025.07 은행이자	Q 12.04		US$ 0.28	Q 56,765.92
2025년 7월 합계		**Q 30,012.04**	**Q 38,182.88**	**US$ 100.28**	
2025년 7월 31일 기준 잔액				**US$ 2,695.53**	**Q 56,765.92**

의견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교민께서는 사무실에 (2445-6461) 전화번호 남겨 놓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관심과 응원!! 보내주실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 주십시오. 한인회 계좌 안내입니다.

은행명 : BAM / 예금주 : ASOCIACION DE COREANOS EN GUATEMALA

▶Quetzales, monetaria: BAM (BANCO AGROMERCANTIL) 30-4021649-2

▶Dolares, monetaria: BAM (BANCO AGROMERCANTIL) 31-4004603-6

** 기부금은 Factura 받으실 수 있으며, 작은 금액이라도 입금증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 : 3104-3719)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인 회 장 이 기 곤

'쿠데타 모의 혐의' 전 대통령 브라질에서는? 대법 '징역 27년' 선고

브라질 대법원이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에게 2022년 대선 패배 후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27년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을 옹호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대응을 예고했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연방 대법원 5명 중 4명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패배 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계획하고 군부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다. 해당 혐의는 최고 43년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지만 대법관들은 70세인 보우소나루의 나이와 지속적인 건강 문제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결정적인 이유는 2022년 대선 패배 후 발생한 폭동 사건 때문이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며 브라질리아의 국회의사당, 대법원, 대통령궁 등에 난입해 건물과 기물을 파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자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폭동을 일으킨 것을 상기시킨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관 1명이 무죄를 지지한 만큼 보우소나루 변호인단은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전직 국가원수로서 일반 교도소가 아닌 특별 시설에서 복역할 수 있다.

외신은 이번 판결로 브라질이 트럼프 행정부와 추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을 내다봤다. 이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검열에 맞선 싸움으로 보고 있다"면서 "전 세계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X에 "브라질 법원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부당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정치적 박해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번 마녀사냥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면서 브라질 국내 정치와 언론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8월부터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머니투데이

샬롬여행사
(SHALOM TOUR)
CALZADA ROOSEVELT 33-86 Zona 7
EDIFICIO ilumina # 802 호
2439-7650, 2439-7706, 5990-7197
shalomlim@hotmail.com, shalomlimgua@hanmail.net

주소 이전 : CALZADA ROOSEVELT 33-86 Z.7 EDIFICIO ilumina # 802 호

최근 항공권 요금 인상으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예약을 미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항공사 운항 시간 조정으로 티켓을 미리 발권하신 분들은 탑승전 꼭 운항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국 출발 항공권도 발권합니다)

The CHOICE

restaurant & bakery

ZONA10 PLAZA EON 레스토랑





더 초이스 ZONA 10 오픈!

투움바 파스타, 치즈돈까스,
들깨크림파스타,
스테이크 리조또 , 불고기 피자 등
한층 업그레이드 된 퓨전한식을
더 가까이서 즐겨보세요!

ZONA7 베이커리 & 커피





생일케이크, 단체빵주문 받습니다!
주문 전 꼭 연락 주세요!

산타루시아 안티구아

사우나, 마사지, 숙소 시설 업그레이드!
여유를 즐긴 후 맛있는 식사 까지 함께하세요!



@THECHOICE_GT

3028-7454 / 3045-5525



라 이 프



믹스커피 마실 때 드는 '혈당 죄책감' '이것' 한 숟갈 넣으면 줄어든다





믹스커피를 마시다가 풍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한 봉지에 이미 5~7g의 설탕이 들어 있어 설탕을 더 넣을 순 없다. 이럴 땐 시나몬 가루를 뿌리는 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시나몬은 계피산과 쿠마린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 커피 맛을 돋우는 효과도 있다. 국제 학술지 '식품 화학(Food Chemistry)'에 게재된 폴란드 연구팀 논문에 따르면 커피와 시나몬 혼합물은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 래디칼을 없애고, 리폭시게나제 효소 활성화를 억제함으로써 염증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임상영양학 저널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시나몬을 하루 4g씩 8주간 섭취한 사람들은 시나몬 대신 위약을 섭취한 사람들보다 혈당 수준이 낮아졌다. 코니 로저스 미국 조지아대 영양학과 교수는 "시나몬을 음식에 첨가해 먹는 것이 염증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시나몬은 음식에 나트륨이나 당을 더하지 않고서 맛을 돋울 수 있는 첨가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미국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시나몬 가루 한 티스푼은 2.6g이고, 열량은 약 6.5kcal다. 당류와 지방은 거의 들지 않았으며 폴리페놀이 한 티스푼 기준 약 300mg 들어 매우 풍부하다. 하루 한 티스푼 정도 섭취하는 것은 부작용 위험 없이 안전하다.

다만, 시나몬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므로 당뇨병이나 만성 염증 등 질환을 치료해주지는 않는다. '건강한 식품 첨가물' 정도로만 활용하는 게 좋다. 로저스 교수는 "당뇨 등 기저 질환을 조절하기 위해 먹고 있던 약이나 운동을 시나몬 섭취로 대체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입 냄새 없애려" 매일 쓰는 '이것, 심혈관 망가뜨릴 수도… 뭘까?

구강청결제를 매일 2주간 사용하면 입안의 유익한 세균이 줄어들어 젊은 성인의 혈관 기능이 악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엑서터대 연구팀은 18~30세 젊은 성인 39명과 67~79세 노인 36명 등 총 75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위약 주스, 질산염이 풍부한 비트 주스, 살균 구강청결제를 각각 2주간 사용했다. 실험 사이에는 2주간의 휴식기를 뒀다. 연구팀은 이 과정에서 입안 세균의 변화, 혈중 산화질소 농도, 혈압, 혈관 확장 기능 등을 함께 살펴봤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물질을 말하며, 농도가 높을수록 혈관이 잘 넓어져 혈압 조절과 혈액순환에 유리하다.

그 결과, 젊은 성인은 비트 주스를 섭취했을 때는 혈압이나 혈관 기능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구강청결제를 사용했을 때는 입안의 유익균이 줄고 혈중 산화질소 농도가 낮아지면서, 비트 주스를 섭취했을 때와 비교해 혈관 확장 기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저하됐다. 연구팀은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인은 구강청결제를 사용했을 때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비트 주스를 섭취했을 때도 혈관 확장 기능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비트 주스 섭취 시 혈중 산화질소 농도가 높아지고 평균 동맥압이 4㎜Hg 낮아졌다. 평균 동맥압이 낮아지면 심장과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연구팀은 "구강청결제가 입안 세균을 억제해 젊은 성인의 혈관 기능을 약화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반대로 질산염이 풍부한 식품은 노인에게 혈압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다만 "짧은 기간의 연구라는 한계가 있어 장기적인 영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ain
Apparel Innovation Nexus

채 용 공 고

AIN GUATEMALA 에서 함께 하실 인재를 모집 합니다.

1. 모집 부문 및 인원

영업부	해외영업 및 생산관리	신입 또는 경력직	2명
원단팀	원단 생산		1명
관리부	수출입 및 총무		1명
공장총무	총무 및 생산지원		1명

2. 지원 자격

1) 모집 부서에 해당하는 신입 및 경력자
2) 스페인어 / 영어 가능자
3) 과테말라 거주자
4) 해외 출장에 문제가 없는자

3. 제출 서류 및 전형 방법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사진 포함)
경력자의 경우 이력서에 경력사항 상세히 기재 요함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4. 서류 접수

E-MAIL 접수 (crespo.cho@ainnovnexus.com)
전화문의 : +502 5834 1869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활성산소 생물학과 의학(Free Radical Biology and Medicine)'에 최근 게재됐다.

"안 달아서 괜찮다?" 이 과일, 당뇨엔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맛이 덜하고 당도가 낮아 보이는 과일이라도 혈당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감처럼 겉보기와 실제 당질 함량이 다른 과일은 더 주의가 필요하다. 당도만으로는 혈당 반응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를 알아보자.



'떫은 감'도 당질은 그대로

감은 익었든 덜 익었든 100g당 15~17g의 당질을 포함하고 있어, 겉보기 당도와 달리 혈당을 올릴 수 있다.

특히 탄닌 성분은 위에서 소화를 늦추는 반면, 장에서는 당 흡수를 오히려 촉진시켜 혈당 반응을 빠르게 만든다. 혈당지수(GI)는 낮지만, 많이 먹으면 혈당부하(GL)가 높아져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다. 중간 크기 감 한 개 정도가 적정량이며, 특히 GI 수치가 더 높은 홍시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식사 후 섭취와 식이섬유 동반 섭취가 도움

감을 먹을 때는 식사 전보다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유리하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는 것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과·배도 조심



감뿐 아니라 사과와 배 역시 당분이 높은 과일에 속한다. 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이미지와 달리, 이들 과일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사과

권장 섭취량은 사과 반쪽, 배 4분의 1쪽 정도다. 특히 갈아서 마시는 과일 주스는 섬유질이 제거돼 과당이 빠르게 흡수되고, 혈당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밤에 먹어도 괜찮아요" 의사들이 선택한 '이 야식', 오히려 혈관이 좋아집니다

야식이 당길 때 라면이나 치킨처럼 자극적인 음식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이런 음식은 속을 불편하게 하고 다음 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밤에 어떤 음식을 선택할까?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자.

혈당 걱정 적은 저탄수화물 식사

메밀은 곡물이 아닌 씨앗이라 글루텐이 없고, 혈당지수도 낮아 식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 복합 탄수화물 형태로 소화도 천천히 돼 포만감이 오래간다.

특히 밤에 먹어도 속이 편하고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돼, 당뇨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혈관 건강에 이로운 '루틴' 성분



메밀에 풍부한 '루틴'은 혈관을 강화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야식 섭취로 인한 혈압 상승 위험도 낮출 수 있어,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도 적합하다.

따뜻하게 먹으면 위도 편안하고 수면에도 도움

메밀은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장내 열을 내려주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다. 찬 모밀 대신 따뜻한 장국 형태로 먹으면 체온 유지에도 좋고,

밤 시간대 소화 부담도 덜하다. 잠들기 전 과식하지 않아도 속이 든든해지며, 편안한 상태로 수면에 들 수 있다.

낮은 열량, 높은 포만감으로 다이어트에도 제격

메밀국수는 한 그릇 기준 250~350kcal로, 일반 야식보다 열량이 낮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들어 있어 포만감은 오래가고 간식 생각도 줄일 수 있다.

삶은 계란이나 채소 고명을 함께 곁들이면 영양 밸런스까지 갖춘 한 끼가 된다. 과식이 어려운 위장 질환자나 간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도 부담 없는 선택이다.

"전문가들도 놀랐다" 아침마다 '이 음료' 마신 사람들, 대장암 위험 80%↓



매일 아침 마시는 한 잔의 음료가 대장암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이 음료가, 이제는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유'.

어떤 원리로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자.

칼슘, 대장 속 유해물질 중화

우유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성분은 칼슘이다. 칼슘은 대장에서 담즙산·지방산과 결합해 유해 물질 생성을 억제하고, 발암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또한 칼슘은 대장 점막 세포의 과도한 증식을 막아 암으로 진행되는 위험을 줄인다. 뼈에만 좋다고 여겨졌던 칼슘이, 대장 건강에도 중요한 방어막 역할을 하는 셈이다.

장내 유익균 증가에 기여

우유 속 단백질과 유당은 장내 미생물 균형에도 영향을 준다. 유익균이 늘어나면서 발암 물질 생성을 억제하고,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비타민D, 면역 조절에도 한몫

우유에 들어 있는 비타민D는 칼슘 흡수를 돕는 것은 물론, 대장 세포의 성장과 면역 조절에도 관여한다. 이는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현대인은 햇빛 부족으로 비타민D 결핍이 흔한데, 우유 한 잔은 이를 보완하는 데 유용하다. 칼슘과 비타민D의 조합은 대장암 예방 효과를 더욱 높여준다.

과유불급, 적정량이 핵심

우유가 대장암 예방에 도움된다고 해도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은 복통이나 설사를 겪을 수 있고, 포화지방 섭취도 늘어날 수 있다.

하루 한 잔 정도가 적당하며, 개인의 체질에 따라 저지방 우유나 대체 유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명 진 정 밀
뚤람수 로떼 9 만사나 A 섹또르 5
소나 4 데 믹스꼬
전화 : 이사삼사-이이오이/일오삼사
팩스 : 이사삼칠-팔구영칠
핸드폰 : 오영영사-영팔영육
마이깡 몰드 제작
재단기 부속 판매
패턴 포마 아크릴
마카지,패턴지,밑종이
미싱부속 판매
봉재용 소모품
각종 바늘 판매


정 치 · 경 제

현 정부 출범 100일 복지 외교 분야 후한 점수

복지 52%, 외교 47%, 노동·경제 43% '긍정'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58%, 부정 34%
검찰청 폐지 검찰 개혁안 '찬성' 51% '반대' 37%

취임 100일의 이재명 정부가 복지와 외교 분야에서 후한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9월 둘째 주(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전화면접방식(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응답자 이념성향: 보수 301명, 중도 343명, 진보 247명, 기타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경제, 부동산, 복지, 노동, 대북, 외교 분야 정책과 공직자 인사 등 각각에 대해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은(2점 척도, 문항 로테이션) 결과, 복지 분야에는 52%가 '잘하고 있다', 28%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답했고, 외교 47%:36%, 노동 43%:37%, 경제 43%:38%, 대북 35%:37%, 공직자 인사 34%:39%, 부동산 32%:35%로 나타났다.

복지와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우세하고, 노동과 경제에서도 긍정률이 부정률을 소폭 웃돈다. 대북, 인사, 부동산은 긍·부정률이 모두 30%대로 엇비슷하고, 의견 유보가 30% 안팎으로 많은 편이다. 이번 주 이재명 대통령의 전반적 직무 긍정률은 58%며, 연령별로는 40·50대 70% 내외, 30·60대 50%대, 20대와 70대 이상에서 40%대다. 정책 평가에서도 유사한 양상이지만, 분야별 언론 주목도나 개인 관심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성향 진보층의 분야별 정책 긍정률은 외교·복지·경제·노동 70%대, 대북·인사 50%대, 부동산 48% 순이다. 중도층은 복지·외교·경제 분야에 절반가량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외 4개 분야에는 긍·부정으로 갈렸다. 보수층은 전 분야에서 부정론 우위다.

전 정부 대비 복지·외교·경제·인사 나은 편, 대북·부동산 비슷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분야별 정책 평가와 비교하면 복지·외교·경제·인사는 나은 편, 대북·부동산은 비슷한 수준이다. 4년 전인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분야별 평가에서는 긍정률 기준 대북 정책이 3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부동산 30%, 외교 29%, 복지 27%, 경제 24%, 공직자 인사 16%, 교육 11% 순이었다. 평가 대상 7개 분야 모두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분야별 평가에서는 유권자 셋 중 두 명이 복지·외교(65%) 정책을 호평했고, 경제·대북·인사(50%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부정 평가 가장 큰 이유 '외교', 한국 노동자 구금 사건 영향인 듯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2점 척도, 재질문 1회), 58%가 긍정 평가했고 34%는 부정 평가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 조사 보다 긍정 평가는 5%p 내리고, 부정 평가는 6%p 오른 것이다.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90% 내외), 40·50대(70% 내외)에서 두드러진다. 중도층은 60%가 긍정적이며, 보수층은 긍·부정이 34%·59%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론(76%)이 우세하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581명, 자유응답) '경제/민생'(14%), '외교'(12%), '소통',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7%), '추진력/실행력/속도감'(6%), '직무 능력/유능함'(5%),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여야 협치/통합', '전 정부 극복'(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336명, 자유응답) '외교'(22%),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7%), '경제/민생', '정치 보복', '독재/독단'(이상 6%),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5%), '국고 낭비/추경/재정 확대', '노동 정책'(이상 4%) 등을 이유로 들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가 다시 최상위로 부상했는데, 이는 지난 주말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구금된 사건 영향으로 추정된다.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석방된 이들은 전세기편으로 귀국길에 올랐지만, 초유의 사태에 이목이 쏠렸고 향후 재발 방지책 마련과 대미 투자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 무렵 직무 긍정 평가: 제13대 노태우 57%(1988년 6월), 제14대 김영삼 83%(1993년 6월), 제15대 김대중 62%(1998년 6월), 제16대 노무현 40%(2003년 5월 31일), 제17대 이명박 21%(2008년 5월 31일), 제18대 박근혜 53%(2013년 6월 3~5일), 제

19대 문재인 78%(2017년 8월 16~17일), 제20대 윤석열 28%(2022년 8월 16~18일)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4%→2%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4%,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6%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그대로다. 조국혁신당은 반토막(4%→2%).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5%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0%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17%,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5%다.

진보층 82%, 중도층 56% 찬성; 보수층 61% 반대

최근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눠 담당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이러한 검찰 개편안에는 유권자의 51%가 찬성, 37%가 반대했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 진보층 82%, 중도층 56%가 찬성, 보수층은 61%가 반대했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 세 차례 조사에서 검찰에 대한 신뢰도('신뢰한다' 응답 비율, 2점 척도)는 모두 20%대에 그쳐,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 심판 관련 다른 5개 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4월 기준 헌법재판소 61%, 중앙선관위 51%, 경찰 47%, 법원 46%, 공수처 32%, 검찰 25%).

'사상 최고' 새 역사 쓴 코스피 이재명 정부 출범 뒤 22.8% 올랐다

10일 장중·종가 기준 모두 역대 최고치 경신

코스피가 10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4년 만에 새로 썼다. 코스닥지수도 0.99% 오르며 연중 최고치인 833.0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한국거래소 시세를 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에 견줘 54.48(1.67%) 오른 3314.53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2021년 7월6일 기록한 역대 최고치(3305.21)를 4년2개월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9일(현지시각)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 열린 이날 서울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12.15(0.37%) 오른 3272.20으로 시작해 오름폭을 점차

매주 화요일 휴무
한·중식 전문
명동
한식
중식
고기
주소 : 11 calle 5-08 Zona 9
오영일팔-일일칠육/이사사일-오이육육
배달은 PedidosYa 를 이용해 주세요

키워나갔다. 오전 9시31분 3300을 넘어섰고, 오후 2시23분께는 3317.77까지 치솟으며 2021년 6월25일의 장중 사상 최고 기록(3316.08)도 넘어섰다.

외국인투자가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3811억원어치를 순매수했고, 코스피200 선물 시장에서도 4985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기관투자가들도 유가증권시장에서 9029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개별 종목으로는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5.56% 오른 30만4천원에 거래를 마치며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다.

지난해 연말 2399.49로 마감했던 코스피는 7월30일 3254.47까지 올랐다가, 이튿날 세제개편안 발표와 한-미 무역협정 타결 이후 한 달가량 옆걸음질을 했다. 9월 들어서는 2일부터 7거래일 연속 올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인하 전망에 따른 유동성 확대 기대,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철회 기대 등이 최근 투자심리를 다시 호전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종가까지 코스피는 올 들어 38.1% 상승했다. 6·3 대통령 선거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22.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적극적인 주식 순매수에도 원-달러 환율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에 견줘 1.3원 내린 1338.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전날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를 전격 공습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해석된다.

여성 전용 쉐어하우스(Cityhaus Z.10)
개인 방 + 개인 욕실 or 개인 방+2인 share 욕실
지하 주차장 포함 / 주 1회 청소 서비스 / 무료 Wi-Fi
가전제품.가구완비.주방용품 / 세탁세제.청소용품
* 1인 가구에 경제적인 월세 *
문의 WhatsApp : 4149-0862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국회 입법사안…사법부 제재 가능"

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사법부, 입법권 있는 것처럼 착각 말라"
특검법 합의 번복, '청병 갈등' 표출엔
"우린 생사고락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헌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가 헌법을 뛰어넘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제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 파기가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갈등 국면으로 번진 데 대해서도 수습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 "마치 사법부에서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한 번 생각해볼 일"이라고 거들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내란전담재판부는 입법사항이다. 사법부에서 법을 만들지 않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끌어오며 여당 차원의 입법 추진 의지를 강조한 셈이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전날 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사항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재차 위헌심판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않는다면 위헌심판 청구대상이 될지 모르니 각별히 유의하고 명심하라고 계속 경고했다"며 "아직도 내란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내란과 절연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게 삐죽삐죽 삐져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의석에서 '(노상원 수첩에 적힌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텐데'라고 말했던 것을 가리켜 "결코 좌시하거나 유야무야 끝내지 않겠다"며 "하루빨리 국민 앞에 솔직하고 진솔하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전날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 파기가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간 이른바 '청병대전'으로 번진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증원하는 주된 내용은 법사위 원안대로 유지됐다"며 "공연한 시비거리로 갑론을박하며 세월을 보내기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라는 3대 특검의 본질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장은 우여곡절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역사

는 하나의 큰 물줄기로 흘러간다"며 "우리는 더 큰 어려움도 이겨냈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지난 10일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묶어 처리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여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고, 정 대표는 합의 14시간 후인 11일 오전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합의안을 뒤엎었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자신을 향한 강성 당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사전에 협의 내용을 지도부와 공유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특히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는 "정 대표한테 나에게 사과하라 해라"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방통위 폐지법 과방위 통과 자진 사퇴 거부 이진숙 '면직'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상임위 통과... 내년 8월 임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이진숙 현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 면직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아래 방미통위 설치법)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미통위 설치법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미통위 설치법을 가리켜 "정무직(이진숙 위원장)만 제척하고자 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아래 안조위)로 회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조위는 법안에 대한 이견이 나올 경우 상임위원회 내에 구성되며, 최장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습니다. 안조위에서 법안을 의결하려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날 안조위에 회부된 방미통위 설치법은 위원 6명 중 4명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의 의결로 과방위 전체회의로 되돌려 보내졌고 통과됐습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안조위는 여야 3대 3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 의원을 안조위 야당 몫으로 넣고 4대 2 구조를 만들어서 강제로 통과시켜 버렸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최민희 위원장은 국회법 제57조 2항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한다)을 언급하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의 수는 위원장이 정하는 것"이라며 "조국혁신당 이해민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합법적"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자진사퇴 거부한 이진숙... 법안 시행되면 '면직' 수순

방미통위 설치법의 가장 핵심은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담당했던 홈쇼핑,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 심사는 물론이고 방송진흥 업무도 방미통위가 전담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상임위원 5인 체제가 7인(상임위원 3명+비상임 위원4명)으로 바뀝니다.

방미통위 설치법이 시행되면 기존 방통위 직원들의 고용

HANA TOUR
❖ 저렴한 멕시코 항공으로 한국 방문하세요.
❖ 세계 전 지역 패키지 여행 / 크루즈 여행
(코스타리카 / 페루 / 유럽 / 칸쿤 및 기타 전 지역)
❖ 언제, 어느 곳이든, 항상 24시간 고객과 동행하는 서비스
이희경(Edita Lee) 3042-6968 / 카톡아이디 editaguate
email : hanatourguate@gmail.com
5A. 16-35 #703 Plaza Pacifico Sur, Zona 14
가장 저렴하고 질 좋은 여행~~

은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됩니다. 이 위원장은 정무직이라 자동으로 면직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미통위 설치법을 가리켜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 목적"이라며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1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방미통위 설치법을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은 부칙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척하고자 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위인설관이라는 말은 들어 봤지만 위인폐관 입법은 처음 들어본다. 위헌이라는 시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1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를 형해화(제 기능을 못하고 껍데기만 남은 상태)하고 방송사를 장악했다는 점 때문에라도 하루 속히 방통위가 정상화돼야 한다. 방미통위를 만드는 건 방송통신의 정상화와 박근혜 정부 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노력을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인 과방위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입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됩니다.

국힘 박정훈 "송언석 사과를…권영세 임명한 윤리위, 후보교체 징계 안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한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권했다.

당 윤리위원회가 대선후보 교체 파동과 관련해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선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지난 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자신과 이재명 대통령이 수거 대상이 돼 사지로 내몰렸을 것'이라는 취지의 연설을 할 때 "제발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한 송 원내대표와 관련해 "(사과 필요성에) 100% 공감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진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저희 당을 공격하는 것에 일종의 항의 차원에서 한 이야기지만 내용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했다"며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탈당, 원내대표 사퇴하라는 말까지 있지만 그런 정도까지 책임질 일은 아니고 충분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그 말에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드리는 것이 좋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권영세 이양수 의원의 당원권 정지 3년' 의견을 낸 당 당무감사위원회 청구에 대해 △비대위 회의와 의원 토론을 거쳐 결론 내린 점 △과정은 거칠었지만 비상하고 힘든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징계하지 않고 마무리한다"고 결정한 지점에 대해 박 의원은 "후보 교체는 일종의 미수 사건으로 우리 당의 아픈 부분이다"고 했다.

이어 "현 윤리위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분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온 게 아닌가 싶다"며 윤리위 결정을 불편해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윤리위 결정이 다수 당원들로부터 존중받을지, 아니면 문제의식에 따라 다시 한번 더 논의하자는 주장이 나올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꺼진 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외교부장관 조현 美서 '특별비자' 외교전

'국민구금 사태' 일주일 만에 해결
美행정부 이어 의회 본격 교섭
"단계별 접근…'美도 피해' 강조"

미국 조지아주(州) 한국인 대규모 구금사태가 발생 일주일 만에 일단락된 가운데 우리 정부는 향후 비자 확대 문제를 두고 미 행정부와 본격적인 외교전에 나설 전망이다. 사태 해결을 위해 급파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면담에 이어 미 의회에서 특별 비자 신설과 관련한 법을 발의한 상원의원들을 만나 지원을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오전 민주당 소속 앤디 킴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빌 해거티 상원의원을 각각 면담하고 최근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 상황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날엔 공화당 토드 영 상원의원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향후 상황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인력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긴요하다"면서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에서 미국 내에서 투자 기반 활

동을 보장하는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협의를 위해 한미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한 만큼 관련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앤디 킴 의원은 특히 미 백악관을 접촉해 한국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비자제도는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구금된 한국 국민이 수갑 등 신체 속박 없이 자발적 출국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미 행정부에 매일 촉구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앞서 사태 발생 4일 만인 지난 8일 급거 방미했다. 이어 워싱턴DC에 있는 우리 기업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애틀랜타 현지에서 긴급 대응 중인 현장대책반과 화상점검회의를 통해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어 지난 10일(현지시간) 루비오 장관을 만나 구금 상황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구금 국민의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요청했다.

이번 사태엔 이례적으로 외교부 장·차관이 미국으로 총출동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지난 9일 미국행에 나서 구금 국민이 있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현장대책반과 본부에서 파견한 신속대응팀 등의 실무 작업을 지휘했다. 구금 국민이 안전하게 석방돼 신체 속박 없이 호송 버스에 오르는 것을 살피고,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해 전세기 입구에서 국민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한 뒤 함께 탑승했다.

향후 한미는 워킹그룹을 비롯한 각 실무 협상에서 비자 문제 확대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상용비자인 B-1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의 한국 할당 신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인 E4(현재 미 의회에 '한국과 파트너 법안'으로 발의)를 신설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한국 근로자들이 미국 근로자들을 교육·훈련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인력이 미국 공장 건설을 위해 들어와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과 시급성엔 공감하면서도 미국인에 대한 훈련을 언급하는 등 요구했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 한국인의 체류와 미국인 연수를 제안하면서 석방 절차가 하루 미뤄지기도 했다.

비자 협상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과 맞물리는 점도 과제다. 한미가 3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 방안을 놓고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의 압박이 시작된 상황이다.

한편 미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된 우리 국민 316명과 외국인 14명 등 총 330명은 이날 오후 3시 이후 귀국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인천공항에 나가 귀국 근로자들을 직접 맞이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워싱턴DC에서 별도로 출발해 이날 오후 5시 40분경 도착할 예정이다.



유명한 집

매주 화요일 쉽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MENU

돼지갈비
떡국
닭똥집 볶음
오리훈제구이
생삼겹살
돼지국밥
부대찌개
오리주물럭
오리탕전골
회덮밥
도가니 수육
소모듬 수육
수육전골
돈까스
매운 꼬리찜
뼈없는 닭갈비
감자탕 전골
콩나물해장국

2시간전 예약

등갈비 김치찜
한방 굴보쌈
한방 토종닭
한방오리수육







MENU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콩국수
잡채밥
육계장
뚝배기불고기
된장찌개
오징어볶음
제육볶음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우거지 갈비탕
도가니탕
꼬리곰탕
떡만두국
들깨 삼계탕
삼계탕
오리탕 뚝배기
감자탕 뚝배기
설렁탕
월남국수
메밀소바
국물떡볶이



1calle 35-09 Z.7 Col. Toledo / 3008-1800, 2433-9788(배달합니다)

사 회

건진 전성배 "맨 입으로 부탁하냐" 희림 대표 아내에게 빌라 · 법카 받아

희림 세무조사 무마 등 각종 청탁 정황
희림 대표 아내에게 45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희림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의 배우자로부터 각종 청탁의 대가로 빌라와 법인카드 등 생활형 뇌물까지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뉴시스가 입수한 전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희림 대표의 아내로부터 여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수수한 정황을 파악했다.

전씨는 2022년 7월께 정모 희림 대표의 아내 김모씨로부터 '남편이 근무하는 희림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전씨는 김씨에게 힘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창기 국세청장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 김씨를 불러 소개했다고 특검은 공소장에 적었다.

특검은 전씨와 김씨의 인연이 2021년 말께부터 시작된 것으로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전씨를 소개받은 김씨는 20대 대선 시기 자신과 친한 가수가 윤 당시 후보를 위해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전씨와 상의하는 등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전씨는 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2022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김씨에게 대통령 부부 등 유력자들과 자신의 친분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김씨의 현안을 해결해 주는 명목으로 금품 수수를 계획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특검에 따르면, 전씨는 자신에게 각종 청탁을 한 김씨에게 "부탁을 맨입으로 하냐,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해주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대가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김씨는 2022년 7월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빌라를 임차해 전씨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임차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또 2022년 11월 16일에는 서울 강남구 소재 커피숍에서 김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받았고, 같은해 12월에는 김씨로부터 김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2022년 7월 21일부터 2025년 1월 23일까지 4529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신교 먹칠하는 손현보 전광훈 왜 선을 넘는가

"민주주의는 통곡한다. 회개하라 위정자여!" 한국 개신교 목사들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서울 YMCA(기독청년회) 강당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다. 1974년 서울지역 부활절 연합예배가 진행되던 YMCA강당이 일순간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만든 유신헌법에 항거해 젊은 개신교 목회자들이 민주주의회복을 촉구하는 피켓과 플래카드를 펼쳐든 채 군사독재에 반대하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대한 놀라움과 충격이 작용했다.

서슬 퍼런 독재정권이었는데, 유신헌법 개폐 주장의 전면 금지와 이를 어기면 영장없는 체포가 가능하도록 한 '긴급조치 1, 2호'를 발동한 뒤라서 혹여나 끌려가 고초를 겪지 않을까 하는 신도들의 걱정도 컸다. 정권은 긴급조치를 위반한 목사들에게는 '정권 전복을 꾀했다'는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씌워 구속했다.

그러나 개신교계가 똘똘 뭉쳐 강력하게 저항하고 정권에 압력을 가하자 독재정권도 어쩔 수 없었던 지 박형규 권호경 목사는 곧 보석으로 풀려났다.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려던 교계 목사들의 민주화 열정은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이 사건 이후 개신교는 독재에 맞서는 저항운동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요즘 개신교계는 사회참여보다는 복음 선교와 개별 교회 중심의 믿음공동체 강화에 치중하면서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다. 80·90년대를 거치며 민주화가 이뤄지고 한편으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데 따라 신도들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 어느정도 작용한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교회도 사회 속에서 기능하는 이상, 사회상의 변화를 반영하게 되지만 최근 보게되는 교계 일부의 일탈은 우려의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대통령선거와 부산교육감재선거 때 신도들을 대상으로 행한 설교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고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최근 경


세상의 소망 예수
사랑의교회 청년부 찬양 집회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41장 13절
2025년 9월 27일 토요일 저녁 6시
과테말라 사랑의교회 본당
이 세상의 참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찬양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찰에 구속됐다. 그는 '이재명 히틀러' 발언이나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한 윤석열 탄핵반대' 등 문제발언들을 이어가다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보수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는 집회에서 기부금 등록없이 15억원을 모금한 혐의로 지난 8일 벌금 2천만원을 선고(1심)받았다. '모은 돈이 헌금이지 기부금이 아니다'는 전 목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극동방송의 김장환 이사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를 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별검사는 김 이사장이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에게 통화를 한 정황을 포착, 그 이유를 캐고 있다.

이들이 보여준 행태는 다수가 성직자로서 해서는 안될 부적절한 처신으로 일회적인 판단 잘못이나 오해 등에서 비롯된 언행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확신에 찬 어조로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특정정파를 두둔하고 반대정파를 폄훼하거나 교회 예배의 형식을 빌어 보수성향 국민들을 선동했다.

또한, 권부와의 인연을 구명로비에 이용했다는 의심을 받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성직자가 이름을 올릴 데가 아니다.

이들이 한 발언만 놓고 보면 진보진영에 대한 맹목에 가까운 적대감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발언의 대상이 교회 신도이건 국민이건 특정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지지하는 언행을 하는 것도 복음전파와 교화(敎化)를 업으로 삼는 목사가 할 일이 아니다. 교회 신도 가운데는 다른 소신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특정정파를 편역드는 것 자체가 종교의 정치개입이기도 하다.

굳이 정치적 소신을 고집하고 싶다면 자연인 손현보 전광훈의 이름으로 주장을 펴는게 맞다.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목사'라는 이름으로 내뱉는 그들의 편향되고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개신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는 부분이다.

교회에 나간 지 오래된 사람들은 '그들이 본연의 자세에서 일탈해 피로감을 유발시킨다'는 자각을 하지만 교회에 갓 등록한 신도나 아예 교회에 다니지 않는 국민들은 그들의 언행을 통해 한국 기독교를 보게 되고 '그런 거지'라고 짐작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들은 존재 자체가 교회 전체의 근심거리다.

기독교는 오랜 역사 만큼이나 타락과 개혁을 반복하면서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비록 외형적으로 기독교의 보수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본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그래서 일요일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이다. 일상의 잘못을 회개하고 영적 치유를 받고 평강을 얻는 곳이 교회이다.

일부 일탈 목사들의 행태에 흔들릴 만큼 한국 교계가 취약하지는 않다고 본다. 유튜브와 SNS 등 고도로 발달한 소통수단에 편승해 독버섯 처럼 번져나가는 사이비 목사들의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 지도 바라봐주길 바란다. 그곳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곤고함을 덜어주려고 힘쓰는 목양(牧羊)에 진심인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빚 없이 5억6천만원 있으면 서울 평균 年 1.2억 벌어야 상위 20%"

지난해 서울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5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총소득은 6423만으로,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차이는 약 4.6배였다.

11일 서울연구원의 '2024년 서울복지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소득분포 5분위 가구(상위 20%)의 평균 총소득은 1억2481만원으로 1분위 가구(하위 20%) 2704만원의 4.6배다.

이는 연구원이 2024년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서울에 거주하는 3004가구를 조사한 결과다.

표본집단의 총소득 평균은 6423만원이다. 평균값이 중위수(5800만원)보다 커 저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연구원은 "저소득 집단이 적게 표집됐을 가능성이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사 대상의 7.3%는 돈이 없어서 집세나 공과금, 공교육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거나 겨울에 난방을 못 하고, 아플 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등의 결핍 상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3%는 휴가 비용을 내지 못하고 균형 잡힌 식사가 불가하거나 여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물질적 박탈로 인해 결핍 수준이 높아 '빈곤층'으로 분류됐다. 이러한 박탈률은 70대 이상 응답자(5.3%)에게서 특히 높았다.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은 비빈곤층이 286만원으로, 115만원인 빈곤층(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의 2.3배다.

반대로 월평균 의료비 지출액은 비빈곤층 3만5000원, 빈곤층 4만2000원으로 빈곤층이 더 많았다. 의료비 지출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빈곤층(37.0%)이 비빈곤층(16.7%)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소치과
MISO DENTAL CLINIC

예약 및 상담: 2439-5445

안녕하세요. 미소치과 입니다.
정직한 진료, 편안한 치료,
당신의 건강한 미소를 위해 언제나 함께합니다.

스케일링 · 충치치료 · 신경치료 · 크라운 · 임플란트 · 심미치료 · 잇몸치료

작은 통증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치과는 미루지 마세요.
지금 미소치과에서 편안하게 시작하세요.



행복 과테골 家



- ♣김치찌개
- ♣된장찌개
- ♣순두부
- ♣육개장
- ♣청국장
- ♣알탕
- ♣칼국수
- ♣쫄면
- ♣돌솥비빔밥
- ♣불고기
- ♣돈까스
- ♣김치볶음밥
- ♣짬뽕밥
- ♣보쌈, 족발
- ♣오리로스, 훈제
- ♣생삼겹살
- ♣양념통닭
- ♣후라이드통닭
- ♣김치 판매
- ♣영양탕(매주화요일)
- ♣닭,오리 백숙(오전예약)
- ♣출장뷔페/돌잔치/회식

이사칠칠-이육삼팔 / 이사칠칠-이칠칠오 / 오삼영사-사일사오
46Calle 6-87 Zona 12 Col.Montemaria 3 / 월~토 12시부터 영업

가구 자산 총액 평균은 6억원, 평균 부채는 4500만원, 순자산은 5억6000만원이다.

전체 가구의 38.9%가 부채를 갖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부채 금액은 1억1565만원이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절반 이상(58.3%)이 상환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주택 관련 지표에서는 집값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비 부담을 의미하는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평균 11.4배에 달했다.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1년 소득 대비 주거임대료의 배수(RIR)는 평균 37.7%다.

마음건강 영역을 살펴보면, 최근 1년간 우울 증상을 느낀 응답자는 23.6%다. 연령대별로는 노년 32.6%, 중장년 25.8%, 기타(40대) 25.1%, 청년 17.9% 순이다.

7.7%는 사회적 고립감을 느낀다고, 46.6%는 외로움 느낀다고 답했다. 연령대별 외롭다고 느끼는 비율은 노년(62.0%)이 가장 크고 중장년(54.0%), 기타(40대·44.9%), 청년(36.5%)이 뒤를 이었다.

15~29세 청년 중 취업도, 교육도,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NEET)족'은 4.6%로 파악됐다. 2022년 조사 당시(3.6%)보다 비율이 높아졌다.

매일 40명씩 스스로 세상 등졌다 22년째 자살률 OECD 1위

작년 자살사망자 1만4439명…자살률 28.3명
OECD 평균 10.6명…우리나라 약 2.3배 높아
10대 자살률 역대 최고…65세 이상도 40.6명

지난해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뜻하는 자살률은 28.3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2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자살 발생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총 1만4439명으로 하루 평균 39.6명이 매일 삶을 등졌다. 자살률은 28.3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다시 상승했다.

자살률은 국가 주요 사건 때마다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8.6명으로 1997년(13.2명)보다 5.4명 증가했다. '카드대란'이 있던 2003년에는 22.7명으로 2002년(18.0명)보다 4.7명 늘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있던 2011년에는 31.7명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대를 찍었다. 이후 2020년 25.7명까지 내려왔으나 지난해는 28.3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총생산(GDP) 13위인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평균(10.6명)과 비교할 때 약 2.3배 높았다. GDP 9위인 캐나다는 자살률 순위는 23위였으며, 12위인 스페인은 29위다. 14위인 호주는 10위, 15위인 멕시코는 33위이다.

올해 2월 표준인구당 자살률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22년째 자살률 1위에 올랐다. 2위인 리투아티아(17.1명)와 비교해도 11.2명이나 많다.

10대 자살률도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기준 10대 자살률은 7.9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중고생 27.7%는 최근 1년간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복지부 조사 결과 65세 노인 자살률은 40.6명으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청년(24.4명)과 중장년(32.0명)도 취업·경제난, 고립 심화 등으로 자살률이 상승하고 있다.

시·도 단위로 보면 충남(29.4명)이 자살률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충북(28.6명), 울산(28.3명), 제주(27.3명), 강원(26.0명), 경북(25.8명) 순이었다. 서울(19.0명), 세종(19.2명), 경기(21.2명), 전북(20.9명)은 자살률이 평균(22.7명) 이하였다.

연령으로 보면 자살 사망자 중 50대가 20%로 나타났다. 이어 40대(18.0%), 60대(16.4%), 30대(12.4%), 70대(10.8%)가 뒤따랐다. 자살률을 보면 1위는 80세 이상(59.4명)이었으며 2위는 70대(39.0명)로 고령층이 많았다. 자살 사망자는 남성(9747명)이 여성(4231명)보다 2.3배, 자살 시도자는 여성(2만4719명)이 남성(1만4685명)보다 1.7배 많았다.

실업률·고용률 등 고용 안정성 관련 지표가 악화하면 자살률도 높게 나타났다. 소득 격차 지표인 상대적 빈곤율과 자살률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자살 유족은 슬픔·상실감뿐 아니라 자책, 사회적 낙인 우려 등으로 고통을 느끼거나 관계 단절을 경험했다. 또 일반인보다 자살 위험이 22배나 높았다. 동반자살, 유명인 자살, 범죄·부조리 문제와 관련된 자살 등은 심한 경우 모방·추종 자살을 초래했다. 실제 유명인 자살 후 1개월간 자살자 수가 전월보다 25.9%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자살 사망자는 사망 전 평균 4.3개의 스트레스를 복합적으로 경험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86%), 가족(62%), 경제(61%), 직업(59%)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신적 요인으로는 심리 불안·스트레스 및 트라우마, 조울증 등 양극성 장애, 우울·중독·조현병 등 정신 질환이 영향을 미쳤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 대비 자살 위험은 양극성 장애 6.1배, 조현병 5.9배 등이 높았다.

경제 요인으로는 파산, 부채 급증, 채권 추심 등 경제 위기, 취업난·실직 등 직업 관련 우울·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 2023년 자살 실태 조사를 보면 '자살 생각을 해 본 사람'의 44.8%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제시했다.

신체 요인으로는 만성질환 등 질병, 신체장애, 사고로 인한 증상을, 대인관계 요인으로는 이혼 등 가족 간 불화, 직장 내 갑질, 남녀 문제 등 사회관계에서 기인하는 불만족이 꼽혔다.



제트 여행사
Jet Express
Travel Agency & Tours



※ 과테 시티 (City)
Hotel Tikal Futura $97
Hotel Barcello $115
Intercontinental $125 (월~금$177)
Westin Camino Real $207

※ 안띠구와 (Antigua)
Convento Sta Catalina $97
Solei La antigua $135
Camino Real Anigua $188
Casa Santo Domingo $257

※ 호숫가 (Atitlan) 띠깔 (Tikal)
Porta Hotel del Lago $159 (금~토$180)
Camino Real Tikal $220
Casona del Lago $98

※ 바닷가(Monterrico/ PTO San jose)
Monterrico -Oceana Resort 뷔페 $345
PTO.San jose -Soleil pacifico뷔페 $285
Rio Dulce -Mansion del Rio $125

mail : jetexpressgua@yahoo.com / 13 Calle 3-40 Local 41 2 do Nivel Edificio Atlantis Z.10
Tel : (502)2385-4646 직통전화 : (502)2383-4324 HP : (502)5867-5867

국 제

"현대 책임. 적절한 비자 요청했어야" '적반하장'에 '뒤끝'까지 부리는 트럼프 행정부

러트닉 상무장관 발언에 미국 매체도 "현실성 떨어져… 상무부 장관에게 전화해 비자 얻어낼 수 있을지도 불분명" 지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인들 구금 사태는 이들이 적법한 비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국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적법한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는 언급하지 않아 미국 내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지난주 ICE(이민세관단속국)의 단속을 받은 조지아주 현대차 관련 공장 노동자들은 잘못된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회사는 적절한 비자를 받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다고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이 '악시오스쇼'에서 말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러트닉 장관은 이번 (단속을 위한) 급습 책임이 전적으로 현대자동차에 있다고 말하며, 현대차가 관광 비자로 노동자들을 데려왔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아, 잠깐만요. 적절한 비자를 받으세요. 적절한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전화하세요. 제가 크리스티 놈(국토안보부장관)에게 전화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라며 "적절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는 하지 말라"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옛날 방식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한다. 이민을 오고 싶고, 노동자들을 이곳으로 데려오고 싶으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더 이상 규칙을 어길 수 없다. 그런 방식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의 이 발언은 구금된 한국인들 중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회의 참석 및 계약 등을 위한 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들이 비자의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들이 전문 외국인 인력을 위한 'H-1B'를 받지 않은 이유는 이 비자를 받는데 수 개월의 시간이 걸리며, 설사 그 시간을 기다린다고 해도 미국에서 발급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는 데 있다.

매체 역시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매체는 "러트닉의 말처럼 적절한 비자를 얻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전문 외국인 인력을 위한 H-1B 비자는 신청자가 정원보다 수십만 명 더 많아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체는 "또 기업이 상무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규정을 어기지 않고도 충분한 수량의 적절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완전 불분명하다"라며 러트닉 장관이 실제 기업이 필요한 만큼의 비자를 국토안보부로부터 얻어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해당 공장은 현대와 엘지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한 배터리 회사로 올해 말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이번에 구금된 인원은 전부 엘지에너지솔루션에서 고용한 자사 직원 및 협력 업체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구금 사태가 한국 기업 때문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입장을 내놓은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관세를 빌미로 한국에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 방송 CNBC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무역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악마는 디테일(세부 사항)에 있다"라며 "일본은 협정에 서명했다. 한국은 합의를 받아들이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흑백논리다. 관세를 내거나 합의를 받아들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 인터뷰에서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비자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훌륭한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이전에 공장을 지었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는 이를 신속하게 실행하고 싶어 한다"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통해 그들이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싶어 할 경우, 그들의 노동자들이 적절한 취업 비자, 즉 단기 취업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인들을 교육시킨 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통령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단기 취업 비자 마련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4일 ICE를 비롯한 미 정부기관의 급습으로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있는 ICE 구금시설에 구금됐던 한국인 등 330명의 직원들은 일주일만인 11일 애틀란타 공항을

SHINSUNG

ISTMO TEXTILES. S.A (신성 니카라과 법인)

- 경력 직원 모집 -

1. 자격 요건

학력	직위	연령	성별
무관	공장장	무관	무관

담당직무	공장장 (봉제 공장 생산 및 운영관리 총괄)	
자격요건 (상세작성)	업무적 경험 필요지식	1.담당업무 봉제공장 전반 운영 및 생산 계획 수립, 관리. 퀄리티 관리(QC) 및 퀄리티 개선 활동 주도 인력 관리(노무관리, 훈련, 교육, 근태 관리) 2.스페인어 가능자 3.해외근무 가능자 (NICARAGUA).
	우대조건	1. 공장장 경력 5년이상 2. 의류 분야 해외법인 경험자

2. 전형 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3. 제출 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경력자는 경력 관련 업무위주 기술

4. 제출 방법
   - Tel: 505-5804-1224
   - Email: gc.jung@ssts.co.kr

출발해 귀국길에 올랐다. 이들을 태운 전세기인 대한항공 KE9036편은 인천국제공항에 12일 오후 3시 30분 경 착륙할 예정이다.

커크 피살에 위협감 고조
美 흑인대학들, 봉쇄 조치 나서

강의·행사 전면 취소…기숙사생은 '외출 금지'
극우 진영 위협에 따른 예방적 조치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보수 성향 정치활동가 찰리 커크가 총격 피살로 사망한 가운데, 흑인 대학(HBCU)들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이 학교들은 커크 사망에 격앙된 극우 세력의 위협 가능성을 이유로 일제히 봉쇄 조치에 나선 상태다.

11일(현지 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전역의 흑인 대학들은 줄줄이 봉쇄 조치를 내리며 구성원들에게 활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스펠먼대(조지아) ▲햄프턴대(버지니아) ▲베튠-쿡맨대(플로리다) ▲서던대(루이지애나) ▲앨라배마주립대(앨라배마) 등은 수업을 전면 중단, 기숙사생들의 외출을 금지했으며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원에게는 캠퍼스를 떠나라고 지시했다.

이날 햄프턴대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성명을 발표, "잠재적 위협 가능성을 통보받아 모든 비필수 활동을 즉시 중단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틀간 모든 강의와 체육 경기 및 교내 행사는 전면 취소된다. 학교 측은 금일 업무 종료 시점까지 상황에 따른 업데이트 사항을 제공할 계획이다.

워싱턴DC에 소재한 하워드대는 아직 위협을 받지는 않았으나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워드대 또한 같은 날 SNS 성명을 통해 "HBCU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위협 보고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에는 일명 '유서 깊은 흑인 대학(HBCU·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으로 불리는 교육기관이 다수 존재한다. 이 학교들은 남북전쟁 전후로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한 흑인 학생들을 위해 설립됐으며, 점차 인권운동 자체를 상징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1960년대 민권운동, BLM(Black Lives Matter·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 등 흑인 권리를 둘러싼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졸업생 출신 법률가들이 변호에 나서는 등 존재감을 부각해 왔다.

HBCU들은 전날 보수 성향 정치활동가 찰리 커크가 총격 사고로 사망하자 일부 극우 진영 지지자들이 테러 위협을 가하면서 봉쇄령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보수 성향 청년단체 '터닝포인트USA(Turning Point USA)'의 창립자 겸 대표 찰리 커크는 유타밸리대학에서 연설 도중 목 부근에 총격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 향년 31세 사망한 바 있다. 사건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JD밴스 부통령 등 공화당 인사들은 애도를 표했으며 암살 용의자에 대해 10만달러(약 1억4천만원)의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다.

이날 미 연방수사국(FBI)는 "다수의 HBCU들에 협박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며 "이러한 위협은 무고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FBI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위협이 될 만한 공격 혹은 단서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커크 피격 사건을 두고 양극화된 미국 사회에서 정치적 폭력이 한층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도중 두 차례 암살 시도를 당했고, 지난 4월에는 민주당 소속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자택 방화 시도로 급히 대피하기도 했다. 급기야 6월에는 무장 괴한이 멜리사 호트먼 미네소타주 의원 자택에 침입, 호트먼 의원과 그의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워싱턴 정가에도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커크 사망 이후 대통령 비밀경호국의 경호가 강화됐으며, 연방의회 의원들은 야외 행사를 실내로 옮겨 진행하는 등 위협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다.



지휘자 취소 · 할리우드 서명 문화예술계 이스라엘 보이콧 확산

벨기에 헨트 음악축제, 이스라엘 지휘자 출연 뮌헨필 프로그램 취소
할리우드 등 영화계 인사 4천명 이스라엘 보이콧 선언
유럽 팝음악 축제 유로비전에도 주요 방송사 줄줄이 불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을 '집단학살'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전세계 문화예술계에서 '이스라엘 보이콧'이 잇따르고 있다.

벨기에의 '플란데런(플랑드르) 헨트 축제' 주최측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라하브 샤니 지휘 독일 뮌헨 필하모닉의 공연을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10일(현지시간) 공지했다.

텔아비브 태생이며 이스라엘 국적 유대인인 샤니는 뮌헨 필 수석지휘자 내정자이며 내년 9월에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현재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직과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직을 맡고 있다.

축제 주최측은 벨기에 문화장관, 헨트 시의회, 헨트 문화계 등의 요구에 따라 "텔아비브 소재 집단학살 정권"과 명확하게 거리를 두지 않는 파트너들과는 협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라하브 샤니는 과거에 평화와 화해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몇 차례 했으나,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지휘자로서 그의 역할을 감안해 볼 때 우리는 텔아비브 소재 집단학살 정권에 대한 그의 입장이 충분히 명확한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샤니 측은 입장을 묻는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의 질문에 답변을 사양했으며, 그의 소속 기획사는 "라하브 샤니는 뮌헨 필하모닉의 유럽 투어 중 나머지 부분에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 인터뷰를 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볼프람 바이머 독일 문화장관은 "특급 독일 오케스트라와 그 악단의 유대인 수석지휘자의 초대가 취소됐다. 이는 유럽의 수치"라며 "이는 순전한 반(反)유대주의"라고 축제 주최측의 결정을 비난했다.

영화계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위한 영화인들'(Film Workers for Palestine)이라는 단체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보이콧 서약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11일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 서약에는 8일 오전부터 지금까지 유명 배우와 감독 등 할리우드 영화인 4천여명이 서명했다.

분 양



▶Zona10 Casalini Sexta Avenida 아파트, 26년 6월완공
▶Zona10 Casalini Los Arcos 아파트
Torre Norte 25년 10월, Torre Sur 26년 4월
▶Z.10 CASA FIORE 아파트, 26년 3월 완공
▶Z.10 Giardino 아파트 분양. 26년 12월 완공
▶Z.10 Inhaus 아파트분양 26년 6월 완공 NEW
▶Z.13 La Aurora 창고분양 25년~27년 완공 NEW
▶Z.14 Torre Ferran 아파트 분양. 25년말 완공
▶Z.14 Amalfi 아파트, 원룸 투룸, 25년 9월 완공
▶Z.15 Faire 아파트 26년말 완공 NEW

한인부동산

토지.아파트.주택.오피스.창고.상가/펀메.분양 및 렌트
문의전화 : 5632-9095 (하나 김)
(hanakim3431@gmail.com)

서약서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한 집단학살과 인종분리에 연루된" 축제, 영화관, 방송사, 제작사 등 이스라엘의 영화 기관들과는 출연, 행사 참석 등 어떤 방식으로든 협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할리우드 영화인들의 이번 서약은 최근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82회 베네치아국제영화제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수천 명이 참가한 데 이어 나왔다.

대중음악계에서는 유럽 최대 팝 음악 축제인 '유로비전'의 내년 대회에 이스라엘의 참가를 놓고 보이콧 방침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아일랜드 공영방송 RTE는 이스라엘의 내년 유로비전 참가가 확정될 경우 자사는 "가자지구에서 계속되는 끔찍한 인명의 손실을 고려할 때 양심에 반하는" 유로비전 참가를 할 수 없다고 11일 밝혔다.

RTE는 주최 측인 유럽방송연합(EBU)의 이스라엘 참가 논의 결과에 따라 보이콧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슬로베니아의 국영방송 RTVSLO도 이스라엘이 참가할 경우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어니스트 우터슨 스페인 문화부 장관도 이스라엘이 대회에 참가한다면 스페인은 불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참가에 반대하며 대회를 보이콧하는 방송사가 늘어난다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내년 대회 참가국은 15~20개국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는 37~40개국이 유로비전에 참가한다.

마틴 그린 유로비전 감독은 "중동 지역의 분쟁에 대한 우려를 이해한다"라며 "유로비전을 둘러싼 참가 관리와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모든 EBU 회원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1956년 시작된 유로비전은 EBU 회원인 방송사가 선발한 국가대표 가수끼리 경쟁하는 유럽 최대의 팝 음악 국가 대항전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1973년부터 올해 대회까지 빠짐없이 참가했으나, 2023년 10월 가자전쟁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올해 대회에서는 이스라엘 가수 유발 라파엘이 2위를 차지했는데, 결선 당일 200명 가량의 시위대가 규탄 시위를 벌였다.

'34명 사망' 네팔 반정부 시위 파손된 기반 시설 2조 원 규모

최근 네팔에서 34명이 숨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발생한 국가 기반 시설 피해 규모가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네팔 도시개발부는 최근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인한 국가 기반 시설 피해액이 14억 달러, 약 1조 9천4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온라인 뉴스 포털 '카라브허브'는 도시개발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피해 규모가 단순히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시위로 여러 정부 부처가 입주한 싱하 두르바르 행정단지를 비롯해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국회의사당과 대법원 청사 등지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위대 방화로 여러 정부 청사가 불에 탔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고문서와 기록도 재로 변했다고 카라브허브는 전했습니다. 또 시위대는 대통령 관저에도 침입해 불을 질렀고, 잘라나트 카날 전 총리 등 여러 전현직 정치인의 자택도 공격했습니다.

시위 중 숨진 이들의 유족들은 전날 카트만두 한 병원 영안실 밖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금전 보상에는 관심이 없다며 숨진 시위자들에게 국가적 예우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시위로 조카를 잃은 카말 수베디는 AP 통신에 "우리는 살해당한 가족과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며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위로 사임한 샤르마 올리 총리를 대신해 임시정부를 이끌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상점을 운영하는 사누 보하라는 "빨리 선거를 치러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새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네팔 시위는 정부가 지난 5일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X·옛 트위터) 등 26개 SNS의 접속을 차단한 데 반발해 시작됐습니다.

네팔 정부는 가짜 뉴스가 확산한다며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SNS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청년들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반부패 운동을 억누르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부패 척결과 경제 성장에 소극적인 정부에 실망한 젊은 층이 대거 이번 시위에 가담하면서 카트만두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로도 확산했습니다.

SNS에서는 사치품과 호화로운 휴가 생활을 과시하는 고위층 자녀들의 모습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대조하는 영상이 빠르게 공유돼 젊은 층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부터 최루탄을 비롯해 물대포와 고무탄을 쏘며 강경 진압을 했으며 34명이 숨지고 1천368명이 다쳤습니다.

호주 노동당 청년위 욱일기 '혐오 상징' 규정 만장일치 결의

"욱일기는 단순한 전통 문양이 아니라 군국주의 침략과 폭력의 기억을 불러오는 상징"

캔버라 호주국립대학교(ANU) 강당은 지난 8월 30일-31일 양일간, 호주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당 청년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500여 명의 참석자 가운데 52명의 선출 대의원들이 나란히 앉아 수백 건의 정책 안건을 검토했다. 그 중 가장 주목받은 순간은 단연 일제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혐오 상징으로 규정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순간이었다.

결의안을 발의한 퀸즐랜드 대표 에릭 윤은 연단에서 "수백만 아시아 태평양 민중이 욱일기 아래에서 전쟁 범죄와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 문양은 패션, 광고, 스포츠 응원도구로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호주 사회가 이미 나치 문양을 법으로 금지했듯, 욱일기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다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장에 있던 다른 대표들 역시 같은 문제 의식을 공유했다. 다문화 공동체와 참전용사 단체 대표는 "욱일기는 단순한 전통 문양이 아니라 군국주의 침략과 폭력의 기억을 불러오는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호주 사회가 욱일기를 단지 아시아의 역사적 문제로만 보지 않고, 서방권 내에서 무분별하게 소비되는 디자인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거리의 벽화, 대중문화 포스터, 심지어 패션 브랜드의 티셔츠에서도 붉은 햇살 무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무늬가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전범 상징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이번 노동당 청년위원들의 결의안은 바로 그 무지(無知)에 경종을 울린다. "호주가 진정으로 포용과 평등을 지향한다면, 욱일기 역시 나치 문양처럼 공개적 사용이 금지돼야 한다"는 것이 대표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회의장에서 바라본 청년 정치인들의 모습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았다. 작은 의결이지만, 이는 호주 사회가 앞으로 어떠한 상징을 용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사적 교훈을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무거운 메시지를 던진다.

만장일치라는 결과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호주 내 다문화 사회가 전범 상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대적 공감대를 보여준다. 나치의 하켄크로이츠가 그러했듯, 이제 욱일기도 호주에서 더 이상 '디자인'으로 소비되지 않을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스 포 츠

양궁 김제덕, 메이저대회 첫 메달 쾌거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銅 획득

한국 양궁 간판 김제덕(예천군청)이 개인 첫 메이저 대회 수상을 이뤄냈다.



김제덕은 지난 11일 광주 5.18 민주광장 특설경기장에서 열린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남자 개인전 3위 결정전에서 이탈리아의 마테오 보르사니를 상대로 7-3(29-29, 30-29, 28-27, 28-30, 29-28)으로 꺾었다.

앞서 김우진(청주시청), 이우석(코오롱)과 함께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한 김제덕은 개인전 무대에선 홀로 남았다.

김우진은 32강서 첫 판 탈락하는 이변을 연출했고, 이우석 역시 16강에서 일찍 떨어진 것이다.

김제덕은 4강에서 안드레스 테미뇨(스페인)에게 4-6으로 패하며 3위 결정전으로 밀렸다.

3위 결정전에 오른 김제덕은 보르사니에게 4세트를 내줬지만 5세트에서 10점 두 발을 맞춰 1점 차 앞서 승리하며 첫 메달을 가져왔다.

김제덕은 지난 2020 도쿄 올림픽에서 17세 나이로 국가대표 1군에 올라 단체전 금메달을 휩쓸며 일약 스타로 발돋움했다.

개인전에서 다소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홀로 메달을 따며 개인 첫 메이저대회 수상을 기록했다.

이로써 한국 남녀 리커브 대표팀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남자 단체전 금메달, 혼성전 은메달, 여자 단체전 동메달, 남자 개인전 동메달) 로 총 4개의 메달을 따냈다.

컴파운드 남자 개인전에서는 최용희(현대제철)가 동메달을 땄다.

엇갈린 흐름 속 재회 이정후 '상승세' vs김혜성 '주춤' 두 달 만의 맞대결 성사

오는 13일 오전 11시 15분 경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와 LA 다저스 김혜성이 서로 다른 흐름 속에서 두 달 만의 맞대결을 펼친다.

오는 13일(한국시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사흘간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주말 3연전이 열린다.

LA 다저스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 사수를 위해,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와일드카드 진출을 위해 치열한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타격감을 되찾은 이정후와 복귀 후 침묵 중인 김혜성이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후와 김혜성은 현재 상반된 분위기에 놓여있다. 후반기 이정후의 방망이는 뜨겁다. 지난 8월 월간 타율 0.300, 장타율 0.450을 기록했다. 그리고 지난 9일 이정후가 시즌 8호 홈런을 기록하면서 9월 타율 0.433, 장타율은 0.600(11일 기준)로 뛰어올랐다. 이정후의 반등으로 샌프란시스코 타선도 활력을 되찾아 가을 야구 진출을 위해 막판 스퍼트를 내는 중이다.

반면, 김혜성은 지난 9월 초 부상에서 복귀한 후 현재까지 13타수 1안타, 타율 0.077으로 저조하다. 최근 두 경기 연속으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며 대타로만 출전했다. 이에 반해 LA 다저스는 콜로라도를 상대로 스윕을 거두며 4연승을 달리고 있다. 과연, 김혜성이 두 달 만에 만나는 '절친' 이정후 앞에서 침묵을 깰 수 있을까.

현재,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막바지 순위

경쟁이 한창이다. LA 다저스는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절대 강자였으나 지난 11일 기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3경기 차로 쫓기고 있다. 하지만 LA 다저스는 강력한 타선을 앞세워 직전 콜로라도와의 3연전에서 스윕승을 거두며 4연승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반해, 샌프란시스코는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최근 10경기 7승 3패 중인 샌프란시스코는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마지노선인 뉴욕 메츠가 주춤한 틈을 타 격차를 두 경기 차로 좁혔다. 다만, 신시내티 레즈 역시 메츠와 두 경기 차(11일 기준)로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 이번 다저스와의 3연전이 매우 중요하다.

1위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LA 다저스는 이번 3연전에서 야마모토 요시노부, 클레이튼 커쇼, 타일러 글래스나우가 차례로 선발 등판한다. 샌프란시스코는 1차전 선발로 저스틴 벌렌더를 예고했고, 이후 선발 투수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치열한 순위 다툼 중인 두 팀의 주말 3연전에서 웃을 팀은 어떤 팀일까.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주말 3연전 1차전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15분(한국 시간) TV 채널 스포티비 프라임(SPOTV Prime)과 스포츠 OTT 스포티비 나우(SPOTV NOW)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600만 소국의 기적 3억 대국의 눈물'

신태용이 쌓은 탑 와르르 "인니 탈락→역대급 추락"

2026년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예선 최대 이변을 꼽으라면, 인도네시아의 충격적인 탈락과 레바논의 기적같은 본선 진출이다.

중국 포털 '시나닷컴'은 12일, U-23 아시안컵 예선을 총정리한 기사에서 "인도네시아는 이전 대회 본선 8강에서 대한민국을 꺾고 사상 처음으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최종 순위는 4위였다. 하지만 이번 대회 예선에선 본선 티켓을 거머쥐지 못했다. 3억명의 인구를 지닌 인도네시아는 U-23 아시안컵 본선에서 관중으로 전락했다"라고 밝혔다.

신태용 현 울산 감독이 이끌던 인도네시아는 2024년 카타르에서 열린 대회에서 최고의 돌풍팀으로 우뚝 섰지만,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과 U-23팀을 겸임하던 신 감독이 떠난 후 다시 예전 약체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번 예선에서 마카오를 5대0으로 꺾었지만, 라오스와 0대0으로 비기고, 최종전에서 한국에 0대1로 패하며 1승1무1패 승점 4에 그쳤다. 승점이 같은 라오스를 득실차로



꺾고 3전 전승을 기록한 한국(승점 9)에 이어 조 2위를 기록했으나, 그것만으론 충분치 않았다.

U-23 아시안컵 예선에선 11개조에서 1위를 한 11개팀과 조 2위 중 성적이 좋은 4개팀 총 15개팀이 본선 티켓을 얻었다. 인도네시아는 조 2위 순위 경쟁에서 중국, 우즈베키스탄, 레바논(이상 승점 7), 아랍에미리트(승점 6)에 밀렸다. 조별리그에서 황도윤(서울)에게 단 한 골을 허용하고도 탈락 고배를 마셨다. 라오스전 무승부가 두고두고 아쉬울 법하다.

동남아시아 축구전문매체 '시시아골'은 인도네시아 U-23팀의 추락을 '역대급 다운그레이드. 2024년 대회에서 역사를 쓴 인도네시아의 놀라운 반전'이라고 칭했다. 해당 SNS 게시글 사진은 신태용 전 감독으로 정했다.

'홈 오브 말라야'도 '마치 거의 완성된 집을 짓다가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U-23팀은 신 감독이 떠난 후 헤랄트 파넨뷔르흐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파넨뷔르흐 감독도 '네덜란드 출신'이다.

반면, 레바논은 기적을 썼다. 레바논은 조별리그에서 말레이시아와 몽골을 꺾고 태국과 비기는 파란을 일으키며 2승1무 승점 7로 조 2위 중 3위를 차지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본선에 올랐다. '시나닷컴'은 레바논의 인구가 607만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개했다.

공교롭게 인도네시아와 레바논은 U-23 아시안컵 본선행 최종 결과가 나오기 직전인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A대표팀끼리 친선경기를 펼쳤다. 점유율 81%를 기록한 인도네시아가 시종일관 몰아붙였지만, 골을 넣지 못하며 0대0으로 비겼다. 내달 월드컵 4차예선을 앞두고 '네덜란드 전설' 파트릭 클라위버르트 인도네시아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편,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A조 요르단, B조 일본, C조 베트남, H조 카타르, I조 이란, K조 시리아와 더불어 3전 전승, 100% 승률을 기록하며 본선행에 골인했다.

중국은 9일 호주와의 D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0대0 무승부를 통해 승점 1점을 따내며 2승1무 승점 7을 기록, 가까스로 본선 티켓을 거머쥘 수 있었다.

E조의 키르기스스탄과 처음으로 본선을 밟았다.

이로써 내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U-23 아시안컵 본선 16개국이 모두 결정 났다. 개최국 사우디를 비롯해 한국, 일본, 중국, 요르단, 베트남, 호주, 키르기스스탄, 태국, 이라크, 카타르, 이란,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가 자웅을 겨룰 예정이다.

2020년 대회 챔피언인 한국은 6년 만이자 통산 2번째 타이틀을 노린다. 지난대회에선 일본이 결승에서 우즈베키스탄을 꺾고 우승했다.

라이더컵 점검 나선 오베리 첫날 공동 선두…매킬로이는 '풍덩'

DP 월드투어 BMW PGA 챔피언십 1R
김시우는 공동 67위로 첫날 출발

미국과 유럽의 남자 골프 전쟁 라이더컵 점검을 위해 유럽 대표팀이 유럽 DP월드투어 BMW PGA 챔피언십(총상금 360만달러)에 나섰다. 유럽 대표팀 일원인 루드비그 오베리(스웨덴)가 공동 선두로 나섰다.

오베리는 12일(한국시간) 영국 잉글랜드 서리의 웬트워스 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9개를 쓸어 담고 보기 1개를 범해 8언더파 64타를 작성했다.

오베리는 톰 바양(프랑스)과 리더보드 정상에 올랐으며, 단독 3위 케이시 자비스(남아공)를 1타 차로 따돌렸다.

루크 도널드 유럽 대표팀 단장의 지명으로 라이더컵에 나서는 오베리는 “그린에서 퍼트를 아주 잘 굴렸고 퍼트 스피드를 공격적으로 맞추려고 노력했다”면서 “퍼트를 많이 성공시킨 게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최근 출산한 아내 곁을 지키는 제프 슈트라카(오스트리아)를 제외한 유럽 대표팀 11명이 총출동했다.

단장 추천 선수로 라이더컵에 나서는 맷 피츠패트릭(잉글랜드)도 버디 8개와 보기 2개를 묶어 6언더파 66타로 선전하며 공동 4위에 올랐다.

저스틴 로즈(잉글랜드),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 셰인 라우리(아일랜드)가 공동 8위(5언더파 67타)를 기록했다.

유럽 대표팀의 핵심 선수인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마지막 18번홀(파5)에서 두 번째 샷을 그린 앞 실개천에 빠트려 보기를 적어내고, 3언더파 69타 공동 33위로 1라운드를 마무리했다.

매킬로이는 지난 8일 끝난 DP 월드투어 암젠 아일랜드 오픈에서 우승해 지난 4월 메이저 마스터스 토너먼트를 제패한 뒤 5개월 만에 홈 팬들 앞에서 우승 감격을 맛보는 등 최근 기세가 좋다.

리브(LIV) 골프에서 활동하지만 라이더컵에 나서는 존 람(스페인)은 1언더파 71타로 공동 67위에 머물렀다.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출전한 김시우도 버디 6개와 보기 3개, 더블보기 1개로 1언더파 71타를 쳐 공동 67위를 기록했다.

이날 오후 악천후로 인해 90분간 경기가 지연됐으며, 오후 7시 30분에 일몰로 인해 경기가 중단됐다. 30명 선수가 1라운드를 다 마무리하지 못해 다음날 잔여 경기를 치른다.

16강은 가볍다…韓 여궁사들 전원 세계양궁선수권 8강 진출

여자 리커브 대표팀 전원이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인전 8강에 진출했다.

안산은 12일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리커브 여자 개인전 16강전에서 중국 황유웨이를 승점 6-2로 이기고 8강에 진출했다.

1세트를 28-27로 가져온 안산은 2세트도 가볍게 상대를 제압했다. 3세트는 26-27로 내주긴 했지만 4세트 10점 두 방을 쏘며 8강행 티켓을 따냈다. 안산은 8강에서 중국의 리 자만과 대결한다.

10일 열린 혼성 단체전에서 7연패 기록이 깨진 안산은 개인전에서 설욕을 노린다. 여자 단체전에서는 강채영, 임시현과 동메달을 합작했다. 안산은 지난 2021년 양크턴 대회에서는 동메달을 땄고 2023년 베를린 대회에서는 8강 탈락에 그쳤다.

강채영은 16강에서 튀르키예 던야 예니하얏를 만나 8강에 올랐다. 1세트를 29-29로 비긴 강채영은 2세트 10점 두 방을 꽂으며 3-1로 앞섰다. 3세트 역시 29점으로 28점에 그친 던야 예니하얏을 제쳤다. 4세트 강채영은 이변 없이 승점을 따냈고 7-1로 승리했다. 강채영은 멕시코의 알레한드라 발렌시아와 8강에서 맞붙는다.

임시현은 인도의 가타 아난드라오 카다케를 상대해 6-0으로 이겼다. 첫 세트는 '텐텐텐'으로 기선제압했다. 가타 아난드라오 카다케는 2세트 활을 한 번 푸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8점-8점-9점을 쐈다. 임시현은 28점으로 승점 4점 고지에 올랐다. 이어 임시현은 3세트도 승리하며 손쉽게 8강에 도달했다.

임시현은 미국의 케이시 코폴드와 인도네시아의 디아난다 초리우니사 16강전 승자와 대결할 예정이다.



방 송 / 연 예

김형석에겐 발끈했던 유승준.. "사과했어야지" 윤일상 지적은 참을까?

작곡가 김형석에 이어 윤일상도 유승준의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프로듀썰 윤일상'에는 '유승준 데뷔 시절+故서지원+야구 응원가, 니네가 좋아하는 뒷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윤일상은 이 자리에서 유승준의 초기 작업 비화와 함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병역 기피 논란에 대한 뼈 있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유승준의 데뷔곡 '사랑해 누나'를 내가 썼지만 당시 방송 출연 제한 문제로 타이틀이 '가위'로 바뀌었다"며 "무대 위에서 보여준 눈빛, 춤, 퍼포먼스 모두 압도적이었다. 인기는 지금으로 치면 지드래곤급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마이클 잭슨도 춤을 잘 춘다고 인정했을 정도였다. 제작사 역시 그를 글로벌 스타로 키우려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일상은 유승준의 내면에는 한국보다 미국을 향한 마음이 더 컸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승준은 웨스트 코스트 랩을 지향했고 한국은 비즈니스의 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결국 자신이 돌아갈 곳은 미국이라고 여겼던 듯하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윤일상은 "대중 앞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끝없이 사과했어야 한다. 사과는 상대가 받아들일 때까지 해야 하는데 유승준은 진정한 사과조차 시작하지 못한 것 같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예인 유승준으로서는 분명 잘못했다. 누구나 실수는 하지만 이후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997년 '가위'로 데뷔한 유승준은 '나나나', '열정', '사랑해 누나', '찾길 바래', '와우'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군대에 가겠다는 말과 달리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됐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은 20년 넘게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채 현재까지도 입국 비자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 그는 '유승준 원천 방지 5법 발의안? 김병주 의원 지금 장난하십니까?'라는 영상을 올렸고 "입대를 하겠다고 한 것은 대국민 약속이 아닌 팬들과 약속이었다. 왜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하냐. 제가 정치인이냐. 국민과 약속했냐"고 발끈했던 바다.

이를 본 작곡가 김형석은 다음 날 "내 노래를 불러 주고 동생으로 맺은 인연이라 사실 그동안 좀 안쓰럽다 생각했다.지금 보니 내 생각이 틀렸네. 자업자득. 잘 살아라"라는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이에 유승준은 "나와 친하지도 않은 작곡가 이슈로 덮였다. 뭐 친했어야 손절을 하든 절교를 하지. 본질 흐리지 말라"며 욱했다.

이랬던 유승준이 윤일상의 지적에는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좀 더 지켜 볼 일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승준이 법무부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및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종국, '속도위반' 결혼 해명했다 "내 나이엔 축복"

가수 김종국이 지인들에게 결혼 소식을 직접 전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11일 김종국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김종국은 "예식장에서 장식 문제로 틀지 못한 영상을 공개하려 한다"며 "재석이 형을 비롯해 지인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던 순간이 담겼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의 결혼을 축하해 주신 정말 많은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열심히 살고 파이팅하겠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조용하게 식을 치르느라 많은 이야기 전달 못 해 드린 점 한편으로 죄송스럽기도 하다. 이해 부탁드리겠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그는 "이런 저와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피로감을 느끼셨을 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다"라며 진심 어린 말을 남겼다.

특히 'GYM종국' 크루에게 직접 알리는 장면이 눈길을 끌었다. 김종국이 "나 결혼한다"라고 폭탄선언을 하자, 깔로스 PD는 "누구랑 하냐"라고 물었다. 또 마선호는 "진짜 말도 안 된다. 가슴이 이상하다. 너무 좋다"며 뭉클한 소감을 전했고 차석빈 실장은 "아예 짐작도 못 했다"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급하게 결혼하게 됐다는 김종국의 말은 '속도위반' 오해를 샀다. 이에 김종국은 "그건 아니다. 내 나이에 속도위반이면 복"이라며 특유의 재치로 받아쳤다.

김종국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일반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으며 사회는 유재석이 맡았다.

정동원 '무면허운전' 협박 5억 요구한 지인, 지난 3월 구속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지인들로부터 협박을 당한 피해를 알렸다. 이들 공범은 정동원에게 5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동원의 신고로 인해 구속됐다.

정동원의 협박 피해 사실은 지난 3월 알려졌다. 당시 이들은 정동원의 휴대전화를 입수한 뒤 사생활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으로 서울 강남경찰서는 주범인 남성을 구속해 조사했다.

이 남성은 다른 일당 2명과 함께 정동원이 과거에 쓴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저장된 사진을 유출하겠다며 수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남성과 붙잡힌 공범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들은 현재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동원의 지인으로 주범 A씨가 정동원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가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A씨와 지인들은 불법적으로 정동원의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 사진첩에 접근해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영상을 확보했다.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A씨를 비롯한 일당은 정동원에게 5억여원을 요구했으나 정동원은 이에 응하지 않고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소속사는 "정동원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다.

정동원 또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정동원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나이는 만 16세였고 당시 정동원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동원을 검찰로 송치했고 정동원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이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 중이다.

소속사는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잘못도 시인하고 사과했다.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사마귀' 고현정 첫 살인 순간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 고현정의 첫 살인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SBS 금토드라마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이 9월 5일 첫 방송됐다.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은 치밀한 스토리와 흥미로운 구성, 파격 변신에 도전한 배우들, 디테일하고 감각적인 연출이 어우러져 단숨에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다. 이에 방송 2회 만에 최고 시청률 10%를 돌파하며 흥행 질주를 기대하게 했다.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이 첫 주부터 이토록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올 타임 레전드 배우 고현정의 압도적인 존재감이다. 고현정은 극 중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남자 다섯을 잔혹하게 죽여 '사마귀'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된 연쇄살인마 정이신 역을 맡았다. 비주얼은 물론 눈빛과 표정까지 확 바꾼 고현정은 등장할 때마다 화면을 장악한다는 평가다.

정이신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잔혹한 연쇄살인마, 홀로 세상에 남은 아들 차수열(장동윤 분)에게는 평생 증오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추앙의 대상이기도 하다.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 1~2회에서 모방 범죄 유력 용의자로 떠오른 서구완(이태구 분) 역시 광신도처럼 맹목적으로 정이신을 추앙했다. 이렇듯 평가가 갈리는 정이신의 살인. 그녀는 왜, 무슨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것일까.

이와 관련 9월 12일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 제작진이 3회 본방송을 앞두고, 과거 정이신의 첫 살인 현장이 담긴 장면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사진 속 정이신은 늦은 밤 집 앞에 나와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그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런데 다음 사진에서 정이신의 새하얀 원피스 위로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새빨간 피가 가득 튀어 있어 궁금증을 유발한다. 그녀가 기대앉은 우물에서도 새빨간 피가 철철 흐르는 상황. 급기야 마지막 사진에서는 피칠갑을 한 정이신이 광기에 어린 듯 기괴하게 웃고 있어 눈을 뗄 수 없다.

이와 관련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 제작진은 "오늘(12일) 방송되는 3회에서는 누군가에게는 증오의 대상, 누군가에게는 추앙의 대상인 '사마귀' 정이신의 첫 번째 살인 진실이 밝혀진다. 온몸에 피칠갑을 하고 모든 감정과 에너지를 한 번에 쏟아부어야 하는 어려운 장면인데, 고현정 배우는 '역시는 역시!'라는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놀라운 연기를 선보였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정이신이 잔혹한 연쇄살인마 '사마귀'가 된 순간, 소름이 돋을 만큼 처절했던 정이신의 첫 살인 순간과 그 이유는 9월 12일 금요일 바로 오늘 밤 9시 50분 방송되는 SBS 금토드라마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 3회에서 공개된다.

'폭군의 셰프' 임윤아♥이채민 망운록 비밀까지 후반부 로맨스 기대감 UP

tvN 토일드라마 '폭군의 셰프'(연출 장태유, 극본 fGRD, 제작 필름그리다·정유니버스)가 반환점을 돌고 후반부에 접어들며 더욱 짙어진 로맨스와 치열한 권력 다툼으로 안

방극장을 달군다.

극 초반부터 화제를 모은 건 연지영(임윤아)과 왕 이헌(이채민)의 로맨스다. 타임슬립 후 수라간 대령숙수가 된 연지영은 이헌과 함께 요리뿐 아니라 마음까지 나누고 있다. 이헌은 연지영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맹세하며 거침없이 다가섰고, 연지영 역시 그의 따뜻한 진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 여기에 연지영을 과거로 끌어들인 '망운록'의 정체가 이헌의 일기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의 운명적 관계가 한층 더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양국의 명운이 걸린 요리 경합이다. 환관 우곤(김형묵)이 제산대군(최귀화)과 손잡고 무리한 조공을 강요하며 경합을 제안했고, 이헌은 연지영과 수라간 숙수들을 내세워 맞불을 놨다. 명나라 숙수 아비수(문승유)의 도발에 연지영이 승부욕을 불태우며, 어떤 기상천외한 요리로 반격에 나설지 궁금증이 증폭된다.

궁중 권력 싸움도 후반부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후궁 강목주(강한나)는 이헌의 상처를 이용해 폭주를 유도하며 연지영 제거 기회를 엿보고 있고, 제산대군은 반정을 꿈꾸며 칼을 갈고 있다. 인주대왕대비(서이숙)는 폐비의 죽음을 둘러싼 비밀을 감추기 위해 고심하는 한편, 임송재(오의식)는 연지영을 발판 삼아 강목주를 밀어내고 권력 쟁취에 나선다. 얽히고설킨 신경전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32세' 한소희, 주제파악 시급 "지금 많이 늙었다" TIFF 웃긴 망언



"너무 예뻐요!". 토론토에서도 한글 함성까지 자아낸 배우 한소희가 겸손이 지나쳐 망언 스타 대열에 합류했다.

12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 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약칭 TIFF)에 참석한 한소희와 전종서가 클로즈업 토크에 임했다. 한소희와 전종서는 영화 '프로젝트Y'(감독 이환) 주연으로 참석했다.

클로즈업 토크에서는 한소희와 전종서의 데뷔 시절부터 돌

가정의학과
박상민 헬스케어 클리닉

박상민
healthcare
clinic



응급진료
방문진료

박상민 클리닉
WhatsApp group

박상민클리닉 WHATAPP방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웹사이트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실수 있습니다.
교민분들을 위해 과테말라 건강 - 생활정보들과
중요한 뉴스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https://chat.whatsapp.com/L2f8bWvegSEK1nNT1bs4BI?mode=ac_t

진료시간 : 월~금요일 9 am~9 pm (예약필수)
토요일 점심시간 없이 9 am~2 pm (예약필수)
응급전화 : 4004-6267
waze/google/uber : 박상민 클리닉으로 찾아주세요.

아보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에 전종서의 영화 데뷔작 '버닝'은 물론 한소희의 넷플릭스 시리즈 '경성크리처' 영상들이 공개됐다.

이 가운데 한소희는 "데뷔할 때의 저를 보면 원초적인 생각이 든다. 내가 지금 좀 많이 늙었다는 생각도 든다"라고 밝혀 시선을 모았다. 한소희는 본인도 멋쩍은 듯 "그런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다"라며 웃기도 했다.

1993년생으로 32세인 한소희의 겸손은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토크 시작 전부터 무대를 향해 "너무 예뻐요!"라는 함성이 나올 정도로 두 배우의 미모가 감탄을 자아낸 탓이다.

실제 한소희는 '돈꽃', '부부의 세계' 등 다수의 작품에서 미모를 강조한 캐릭터로 데뷔 초부터 각광받았던 터다. 하루 전 진행된 프리미어 상영회 레드카펫에서도 한소희와 전종서의 드레스핏이 화제를 모았을 정도.

다만 한소희는 "매번 새로운 작품들이 감사하게 주어질 때마다 어떻게 하면 다른 방식과 다른 모습으로 접근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라며 "요즘 시대가 빠르지 않나. 그 시대에 발맞춰 가는 것도 하나의 숙제처럼 느껴진다"라고 덧붙였다.

'프로젝트Y'는 가진 것이라고는 서로뿐이었던 미선(한소희)과 도경(전종서)이 밑바닥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숨겨진 검은 돈과 금괴를 훔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이환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맡았다.

영화는 이번 토론토 국제영화제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섹션에 공식 초청됐다. 이에 한소희와 전종서는 지난 10일(현지시각) 진행된 프리미어 상영회와 레드카펫 행사에도 이환 감독과 함께 참석해 현지 팬들을 만났다.

연상호 감독 '얼굴' '귀멸의 칼날' 독주에 제동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하 '무한성편')이 개봉 이후 처음으로 연상호 감독의 신작 '얼굴'에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내줬다.

12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박정민 주연의 '얼굴'은 개봉일인 전날 3만5천여 명(매출액 점유율 22.6%)이 관람하며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22일 개봉 이후 20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던 '무한성편'은 3만3천여 명(매출액 점유율 24.1%)을 모으며 처음으로 2위로 물러났다. '무한성편'의 누적 관객 수는 413만여 명이다.

연상호 감독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얼굴'은 앞을 보지 못하는 전각(篆刻) 장인 임영규의 아들 임동환이 어머니의 죽음에 관한 비밀을 파헤치는 이야기다.

박정민이 젊은 임영규와 아들 임동환 역으로 1인 2역을 맡았고 권해효, 신현빈, 임성재, 한지현이 출연했다. 제작비가 2억원대인 저예산 영화로, 3주간 20여 명의 소규모 스태프와 함께 촬영했다.

박스오피스 3위는 지난 5일 개봉한 조여정·정성일 주연의 스릴러 '살인자 리포트'로, 1만3천여 명(매출액 점유율 8.8%)이 관람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예매율 1위는 오는 24일 개봉하는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가 차지했다. 18만1천여 명이 예매해 30.3%의 예매율을 기록 중이다.

예매율 2위는 13만여 명(예매율 21.9%)이 예매한 '무한성편'이고, 3위는 4만4천여 명(예매율 7.4%)이 예매한 '얼굴'이다.

슈주 최시원 "편히 잠드소서" '총격 사망' 美 우익활동가 찰리 커크 추모글, 돌연 삭제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이 최근 총격으로 숨진 미국 보수 성향 단체 대표 찰리 커크(31)를 추모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최시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이 잠드소서(REST IN PEACE)”라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를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커크의 얼굴과 함께 십자가 그림이 삽입됐고, 고인이 가족과 함께한 사진도 함께 올라왔다. 이어 그는 성경 구절인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문구와 함께 커크의 가족 사진을 추가로 공유하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은 몇 시간 만에 삭제됐다.

찰리 커크는 이달 10일(현지시간) 미국 유타주 유타밸리대학에서 열린 토론회 도중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당시 청중은 커크에게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총기 난사범이 몇 명이냐”고 물었고, 커크가 “너무 많다”고 답변한 직후 총격이 발생했다. 그는 목 부위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일까지 조기를 게양해 고인을 추모하라고 지시했다. 커크는 우익 단체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 겸 대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혀왔다. 그는 기독교적 가치와 보수주의를 대변하며 활동했지만, 총기 규제 반대와 소수자 차별적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온 인물이기도 하다.

최시원은 평소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메시지를 전해온 만큼 이번 추모 역시 종교적 배경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커크의 논란적 행적을 의식한 듯 최시원은 게시물을 삭제하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테일러 스위프트 마돈나 넘어 '역대 최고 앨범 판매' 여성 아티스트 눈앞!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35)가 음반 판매량 신기록을 세우며 팝의 여왕 마돈나(67)를 넘어설 전망이다.

영국 대중지 '더 선'은 지난 10일 테일러 스위프트가 총 2억 4,800만 장의 앨범 판매고를 기록하며 올해 연말까지 역대 최고 판매량을 자랑하는 여성 아티스트로 등극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더 선'에 따르면 현재 그녀는 2억 5,200만 장을 판매한 '팝의 여왕' 마돈나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오는 10월 3일 발매 예정인 그녀의 12번째 정규 앨범 'The Life Of A Showgirl'은 이미 그녀의 역대 최고 판매 앨범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스포티파이는 이미 이 앨범이 스트리밍 역사상 최다 '사전 저장(pre-saved)'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전 기록 역시 그녀의 2024년 앨범 'The Tortured Poets Department'가 보유하고 있다.

이 앨범은 발매 첫 주에만 261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스포티파이에서 하루 만에 3억 회, 5일 만에 10억 회 스트리밍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또한, 테일러 스위프트는 빌보드 핫 100 차트 상위 14곡을 모두 자신의 곡으로 채우는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영국 차트에서도 그녀의 기록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2025년 2월, 그녀는 라이브 앨범 'Lover (Live From Paris)'로 13번째 영국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하며 마돈나의 기록(12회)을 경신했다. 이로써 그녀는 엘비스 프레슬리와 어깨를 나란히 했으며, 로비 윌리엄스와 비틀즈만이 15회로 그녀보다 앞서 있다.

이처럼 두 아티스트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돈나는 지난 2015년 아이하트라디오 어워즈에서 테일러 스위프트를 자신의 무대에 초대해 함께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새 앨범 'The Life of a Showgirl'에 대해 자신이 항상 만들고 싶었던 팝 앨범이라고 밝히며, 조지 마이클의 1987년 곡 'Father Figure'를 재해석한 'Father Figure'를 포함해 총 12곡을 수록했다.

매주 일요일 휴무
월요일~토요일
오전9:30~오후8:00

DON-BAB

DON BAB

솔트 삼겹살 Q85
고추장삼겹살 Q85
간장 삼겹살 Q85
돈까스 Q85
제육덮밥 Q80
불고기덮밥 Q80
DON-라면 Q65
떡볶이(2인분) Q.120

모둠튀김 Q.75
새우튀김 Q.150
어묵우동 Q.80
닭강정 Q.80
찐만두/튀김(6pcs) Q.70
쫄면 Q.80
쫄면 짜장면 Q.80
볶음밥 Q.75

** 새로운 매뉴 **
두부찌게 1인분 Q80
청국장 찌게 1 인분 Q80

김밥류 1줄도 주문 가능
일반김밥 1팩 Q75/1줄 Q40
불고기김밥 1팩 Q85/1줄 Q45
참치김밥 1팩 Q85/1줄 Q45
새우김밥 1팩 Q85/1줄 Q45
삼겹살김밥 1팩 Q85/1줄 Q45

배달 주문 받습니다
현지인주문 4105-8583
한국인주문 3056-8176
WhatsApp & 카톡으로 주문 가능
DONBAB-7

아래 콤보 메뉴를 주문하시면
두가지 맛을 즐기실수 있습니다!
A. 떡볶이+순대 (음료수 포함) Q100
B. 떡볶이+김밥 (음료수 포함) Q100
(김밥 종류 세가지 중 선택사항)
C. 떡볶이+돈까스 (음료수 포함)Q100
D. 떡볶이+튀김 (음료수 포함) Q100
E. 떡볶이+우동 (음료수 포함) Q100
F. 떡볶이+ 볶음밥(음료수 포함)Q100

교 민 장 터

과테말라 거주 교민들의 중고 거래 무료장터 입니다.
부동산 임대, 자동차 판매, 구직광고는 유료입니다.

물품·부동산	광고 게스트 하우스(내식당)-급매-식당비품일체, 현재 영업중 팝니다. 빨링 빅토리아 4627-0678	싱글침대, 이층침대 구입 원합니다. 5477-4922	가정용 lg냉장고 q1500 Tel 505-29856
	영창피아노, 책장, 책상, 쇼파 테이블, 일인용 쇼파셋트 판매 문의 : 5208-0322	휴징 롤 프레스 팝니다 90cm 드럼 4739-6294	
차량판매			
구인구직	광고 책임감있고성실하신 생산관리자 구합니다. 연락처 5203-7478	AIN GUATEMALA 채용공고 (13페이지 참조)	신성 니카라과 채용공고 (29페이지 참조)

GOLDEN GREEN

골든그린 과테말라 경력 사원 채용 공고

골든그린 과테말라에서 함께 성장할 소중한 인재를 찾습니다.

구 분	모집부분	직급	사 원 자 격
경 력	제품 생산 기획/관리 (후공정)	대리-부장급	GARMENT WASHING/DYEING 관리 유경험자 스페인어 가능자
	영 업	과장-차장급	의류벤더 경력자/COSTING 가능자 우대 영어/스페인어 업무 가능자
	외주공장 관리/ 프린트 및 자수관리	대리-과장급	외주공장 관리/프린트 및 자수관리 스페인어 가능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이메일 접수 : alex.han@4goldengreen.com / 5778-5977

나랑호 한인마트

LA CIARA
Corea cerca de ti

!!!신상품 다량 입고!!!



밀 베이커리 빵 입고 판매

한국 중국 택배서비스

(주)샤오싱로지스틱스
완벽한 포워딩제공
매주 한국-중국
컨테이너 출항

SHAOXING INTERNACIONAL LOGÍSTICA
SHAOXING_INTERNACIONAL
SHAOXING_.GT

달 빛 조 각 사

-돈많은 조각사 상이 로디움의명물이 되었습니다. 이 화려한 조각품을 보기 위하여 많은 여행객들이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돈 많은 조각사 상의 소유권은 위드 님에게 있습니다. 향후 조각상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다면 위드님에게 충성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대작 조각품을 만든 대가로 전 스탯이 3씩 추가로 상승합니다.

서윤을 조각했을때와 가족을 조각했을 때, 그리고 이제는 금 조각상이 대작이 된 것이다. 본래 대작은 이렇게까지 흔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최초는 무엇이든 가치가 있는 법!
대장장이 스킬을 이용하여 조각한 것을 상당히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었다. 다음번에는 다시 대장장이 스킬을 이용한다 해도, 매우 뛰어난 완성품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대작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

수천개를 만들면서, 그 노력의 결실에 따라 걸작, 명작, 대작이 나온다. 고난 끝에 작품을 완성하는 것은 생산직이나 예술직들만이 얻을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었다.

'고생한 보람이 있군.'

위드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보통 사람들은 조각사가 무언가를 깍는 직업이라고 착각을 한다. 하지만 실제 조각사는 입체적인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예술가다. 대장장이 스킬을 비롯하여 모든 것들이 조각의 기법이 될수있다. 그러므로 조각사들은 2차 전직도 상당히 다양하게 하는 편이다.

금속 조각사, 목 조각사, 석 조각사, 대지 조각사, 동굴 조각사 .....

왕궁이나 도시에 취직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수십 가지 다른 형태의 조각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달빛 조각사의 경우에는 숨겨진 직업이라서, 2차전직도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를 수 밖에 없다. 그 레벨의 제한이나 스킬의 요구 조건이 훨씬 높은데다 직업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것처럼, 전직할수 있는 퀘스트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띠링!

로디움의 예술가 완료
훌륭한 조각사는 자신의 걸작으로 이야기한다. 완성된 조각품은 그가 도시의 예술가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함을 증명하였다. 예술가 조합에서 도시의 예수락로 등록을 할 수 있다.

퀘스트 보상 : 조합으로 돌아가시면 예술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로디움에서 조각사와 관련된 퀘스트들을 받아 보실 수 잇습니다.

퀘스트 성공!
하지만 고생한 것에 비해서 별다른 보상품은 없는 퀘스트였다. 보통 수준이 낮은 조각사라면, 대충 아무것이나 하나 만들어 주고도 로디움에서 활동할 수있다. 위드의 경지가 너무 높은 편이라서 좀 더 고생을 한것이다.

단 하나의 조각품도 대충 만들어서는 안 되는 직업!
조각사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한 파급 효관를 가진 직업이다. 직접 전투 능력은 떨어지고, 모험을 하는 데 조각품들이 유용한 것도 아니다. 당장 필요한 것이 있어도 조각품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조각을 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좋은 조각품이 많은 왕국과 도시는 발전한다. 조각품들이 사람을 불러 모은다. 문화가 발달하면 국력이 강해지는 것이다. 로자임 왕국도 대형 사자 상과 피라미드 덕분에 관광객들이 몰리고, 주변의 던전도 미어터질 지경이라고 한다. 예술품 하나로 미래의 국력을 좌우하는 직업! 그렇지만 위드는 국가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사심이 중요했다.

"내 조각품으로 남 좋은 일을 할 수는 엇지. 조각품에 생명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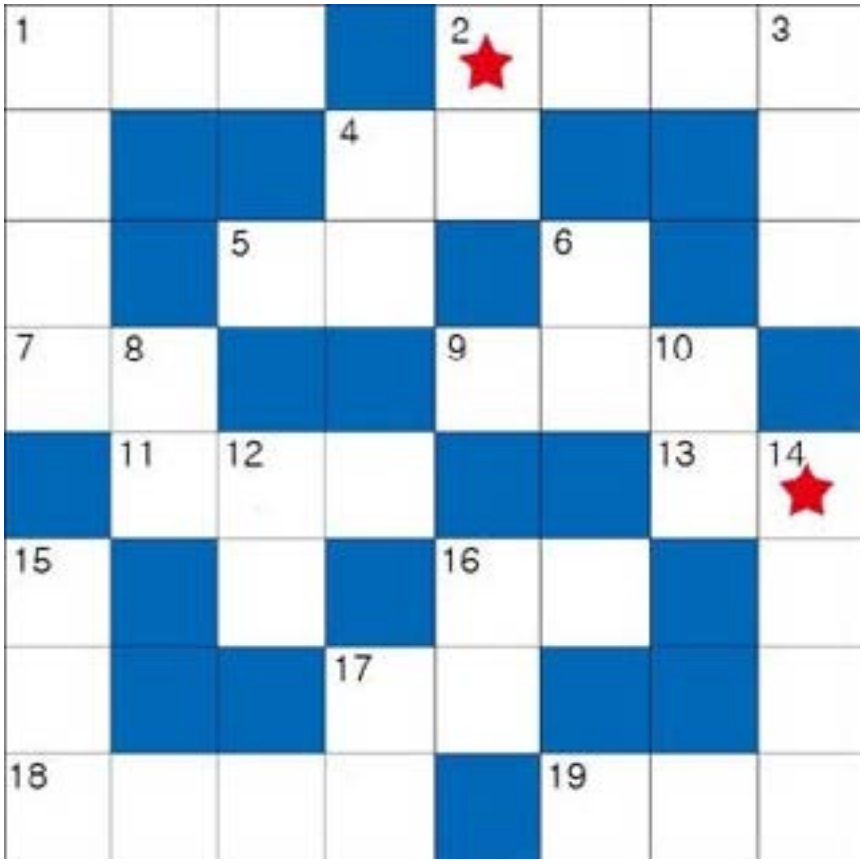
위드는 금 조각상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키와 몸이 사람보다는 조금 작은 조각상이다. 전적으로 금괴가 모자랐기 때문이다.

후우우웅!
금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딱 녹지 않으르 정도로 달아오른 금 조각상이 유연하게 몸을 움직였다.

-조각품에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조각품의 능력은 현재 설정된 예술 스탯 762에 따라 레벨에 맞춰 351로 변환됩니다. 하지막 위대한 대작 조각품

낱 말 퀴 즈



지난 답



* 가로열쇠

1.고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형편
2.종이나 헝겊의 자질구레한 오라기
4.집안에 널빤지를 깔아 놓은 곳
5.덮는 물건. 뚜껑
7.싸우고자 하는 굳센 마음 9.남이 시키는 대로 손을 드는 사람
11.고기를 파는 가게
13.손가락 끝에 끼우는 바느질 도구
16.편들어 감싸 줌
17.정겹고 고분고분한 태도로 대함
18.내세우는 합당한 구실이나 이유
19.아무 보람도 없이 애를 씀

* 세로열쇠

1.남의 도움 없이 힘에 벅찬 일을 잘해 나감
2.강에서 배가 건너다니는 일정한 곳
3.상례에서 벗어나 특이한 것
4.병의 아가리를 막는 물건
6.쩨쩨한 수단이나 방법
8.가리키어 확실하게 정함
10.기백과 골격
12.쇠고기를 얇게 저미어 말린 포
14.잘 헤아려 보지도 아니하고 마구
15.먼저 출발하는 무리
16.교통이나 통신이 끊어짐
17.아주 가깝고 두터운 정분

의 효과로 인해서 20%의 레벨이 추가되어 420으로 늘어납니다. 생명체에 세가지의 속성이 부여됩니다. 조각품의 모양과 수준에 따라 부여되는 속성의 수준과 능력치가 다릅니다.

화염의 속성(50%), 금속의 속성(100%), 물의 속성(60%). 금속의 표면은 대다수의 마법을 무시할수 있습니다. 다만 재질이 무른 금의 속성으로 인해 방어력은 뛰어나지 않습니다. 무제한의 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화염은 스스로의 몸도 녹이게 할 것입니다. 액체로 변할수 있습니다. 화염으로 녹아든 몸은 다양한 형태로 변할수 있고, 적을 공격하는데 유용하게 쓰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액체로 변할때마다 신체의 일부가 사라질수 잇습니다.

마나가 5,000 사용되었습니다. 예술 스탯이 10 영구적으로 줄어듭니다. 줄어든 스탯은 조각품 제작이나 다른 예술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보충할 수 있습니다.

레벨이 2 하락합니다. 레벨 하락에 따라서 가장 최근에 올린 스탯이 10 줄어듭니다. 줄어든 스탯은 레벨을 올리게 되면 다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부여된 조각품을 소중히 다루어 주십시오. 목숨을 잃으면 다시 생명을 부여해야 합니다. 완전히 파괴되었을 경우에는 되살릴수 없습니다.

조각사의 꿈!
대작으로 완성된 조각품에 생명을 부여하니 레벨이 무려 420이나 되었다. 같이 싸운다고 해서 경험치가 오는것도 아니고 한번 파괴당하면 끝이라고 해도, 굉장한 전력인 것이다.

'서윤의 조각상도 나중에 생명을 부여해야겠군.'

위드는 언젠가 유노프 협곡으로 돌아가서 최초로 만들어진 대작, 서윤의 조각상에도 생명을 부여하기로 결심했다. 다만 조각품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그렇게 자주 써먹을 만한 기술은 아니다. 레벨 2개와 예술 스탯 10개가 사라질 뿐더러, 기왕에 생명을 부여할 것이라면 좀더 예술 스탯이 올라간 나중에 하는 편이 좋았다. 일단 생명을 부여한 다음에는 인위적으로 조각품을 성장시키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키이잉!

금 조각상이 눈을 뜨고 깨어났다. 조각상은 본능적으로 위드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는듯한 눈빛이었다. 기분이 좋기도 할것이다. 기본적으로 재질이 금이었고, 대작으로 생명이 부여되었으니 기쁠수 밖에 없는것이다. 금 조각상이 황금으로 번쩍이는 누런이를 드러내며 말했다.

"골골골골! 이름을, 저의 이름을 정해 주십시오."

위드는 즉시 그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

"금인으로 하자."

"금인. 금인. 골골골!"

금인이는 자신의 이름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했다.

"어떤 적과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주인!"

위드는 절대적인 충복을 하나 얻은 것이다. 비록 파괴되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조건이 달려 있지만, 죽지만 않는다면 최후의순간까지도 충성심을 바치는 것이 조각품이었다.

"끄아아악!"

창공에 굉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하늘을 가로지르면서 나는 와이번들!

6마리의 와이번들이 편대를 이루어 북서쪽으로 날아가고 잇었다. 웅장한 위용. 고위 몬스터인 와이번의 이동이었다. 리치 샤이어에게 격추된 4마리를 제외하고, 살아남은 나머지 와이번들이 위드가 있는 곳으로 날아가는 것이었다. 본래 생명이 부여된 조각상들은 주인을 애타게 그리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행동은 본능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와일이, 와둘이, 와삼이, 와오이,와육이, 와칠이. 조각품에 생명을 부여할때마다 예술 스탯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름이 빠른 순서대로 조금씩 강했다.

"끄아악!"

와이번들은 가끔씩 지상으로 내려가서 말이나 동물들을 잡아먹어 배를 채웠다. 밤에는 절벽 위나 큰 동굴 속에서 잤다. 타고난 강철같은 체력으로 인해서 조금만 쉬어도 되었으니, 하루에날아가는 거리는 어마어마했다. 날개를 한번 펄럭거릴 때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정은 결코 좋지 못했다.

"하늘을 나는 것이너무 힘들다!"

와칠이가 불만을 토로했다. "몸에 부딪는 바람이 너무 세."

와이번을 비롯한 조류들의 몸은 대부분 날렵한 유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과테말라 한인 교회 연합

(가나다 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최정욱

예배 · 성령 · 선교 · 사랑

주일예배 : 오전 10시 30분(동시통역)
교회학교 : 오전 10시 (통합예배)
새벽기도회 : 오전 5시(화~금)
전교인토요기도회 : 오전 6시(1,3주 토요일)
금요중보기도회 : 오후 8시(2,4주 금요일)
주소: 18 Calle 5-92 Col.Mariscal Z.11
연락처: 3033-7551 / 카카오톡:oj2005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과테말라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이정로

주일 1부예배 : 오전 9시
주일 2부예배 : 오전11시
금요 기도회 : (금) 오후 8시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
청소년부예배 : (토) 오후 2시
청년부 모임 : (주일) 오후 1시
새벽예배 : (월-금) 새벽 5시
주소: 17Ave 28-92 Zona 12
교회 : 2293-2100

해외한인장로회 과테말라 주님의교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복음과 사랑으로 지경을 넓히는 교회 (대상4:10)



담임목사 양철호
☎ 3029-1722

◉ 주일예배: 오전 9시 30분
◉ 주일학교: 오전 11시 30분
◉ GUATEMALTECO 예배: 주일오후 2-5시
◉ 수요성경공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새벽 기도회(월-토): 오전 5시 30분
◉ 실시간 라이브 톡 방송설교
☞ 카카오톡 접속ID : open2u

주소: 44 Calle 3-42 Z.12 Monte Maria 1
E-MAIL: open21me@gmail.com

제 일 교 회



담임목사 정지호

주일예배 : 오전 11시
수요예배 : 오후 8시
유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
중고등부 예배 : 토요일 오후 2시
청년부 모임 : 주일(2, 4주) 오후 1시
새벽기도회 : 화~금 새벽 5시
전교인기도회 : 첫째주 토요일 오후 7시
토요 공부방 : 토요일 오전 9:30~12시

주소 : 0 Ave 9-41 Z.9 / 교회 : 2362-8565

재미한인예수교 장로회고신총회 하비스트교회

"하나님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

- 주일예배 : 오전 11시
- 주일학교 : 오후 1시
- 수요신앙강좌 : 수요일 저녁 8시 (온라인)
- 새벽기도회 : 월~금 5시 30분

담임목사 : 서동오, 연락처 : 4067-1051, 2292-3662
주소 : 4 ave 'a' 14-76 Zona 14 (웨이즈 : 하비스트교회)

GUATEMALA CITY 평강교회 IGLESIA de LA PAZ

www.gupc.org



(최유찬 목사)

- 주일, 오전 8시(1부), 오전 11시(2부)
- 주일, 어린이 예배 - 오전 11시
- 수요, 저녁예배 - 오후 8시
- 금요(1,3주) 기도와 찬양 - 오후 8시
- 토요, 새벽기도회 - 오전 5:30

11Ave. 29-46 Zona12. El Bosque
USAC 입구 ☎ 2476-5772, 4677-4399

대한예수교 장로회 과테말라한인교회



담임목사 김디모데

2025년 표어 :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교회"
주일 1부 : 오전 9시 / 주일 2부 : 오전 11시
요셉학교(13~18세) : 오전 10시 30분
야곱(9~12세)/다니엘(5~8세) : 오전 11시
꿈의(2~4세)/씨앗(0~24개월) : 오전 11시
금요기도회 : 저녁 8시(2~5주)
토요월삭기도회 : 매월 첫째주 토요일 새벽 6시
새벽기도회 : 새벽 5시(월~금)

37Ave 3-36 Colonia El Rodeo Zona 7
교회 : 2433-4533, 2432-1449



읽는 방향


두근
두근
두근
두근
저기... 죄송한데요...
한 쪽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자리 좀 양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가 어째?!!
아... 아닙니다 .....
여보게, 젊은 양반...
죽고 싶나-
내가 저... 나이가 들다 보니 서 있기조차 힘들어서 그러는데...
좀 앉을 수 없겠나?
이런 젠장할! 장난하나 지금?!!
아... 아닐세. 미안하네 .....


씨익~
크하하하~!!
내가 될 줌 아는 구나. 내가 양보하지!!
탓!
.....
이... 이봐! 3만원 줄께. 넘겨!!
난 4만원 줄께, 4만원!!
카- 맥이는데!

영신 과테말라 신입 및 경력직 채용 공고

인재를 찾습니다.

영신과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재능과 열정이 있는 분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경력 및 나이 무관)	● 영업 관리 :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 국문(사진포함) ● 자기소개서 : 경력자는 경력관련 위주 기술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후 2차 면접 진행
고용형태 및 근무조건	● 정규직 ● 보험 및 기타 복리후생 지원
문의처 및 서류접수	● 이메일 접수 : hyjung@youngst.com



KOH

Clinica Dental

치주 질환 치료
신경 치료 · 치아 발치
교정 · 보철 · 미백

2485-6718
2485-6719
3148-1105
Calzado Roosevelt 35-98 Zona 7
Hospital de Día Itzamná Clinica # 5

'아버지달' 맞이 스케일링 & 진단 치과 이벤트!!

Q485.00

빙학 맞이 어린이 스케일링 & 진단 치과 이벤트!!

Q300.00

2025년 9월 12일 [7.21] 금요일

오늘의 운세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마음으로. 3,4,5,6월생 이미 결정된 일을 가지고 망설이지 말라. 늦잠자면 손해. 7,8,9,10월생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좋은 결과가 온다. 메이크업은 안정되게. 11,12,1,2월생 문제가 고비를 넘겼다. 전화위복으로 생각하면 기회가 온다.



일이 잘 풀린다고 방심하면 안된다. 3,4,5,6월생 능력 인정받는데 시간이 걸리나 건강을 지키면 기회를 잡는다. 7,8,9,10월생 정당한 일만 고집하면 오해받을 수 있다. 외출이 정신 건강에 보약. 11,12,1,2월생 지금 공부가 평생 도움이 된다. 시력 보호에 힘써라.



변화가 필요한 시기. 외국에 갈 기회가 오면 잡아라. 3,4,5,6월생 완벽한사람은 없다. 만나며 장점을 발견하라. 7,8,9,10월생 양쪽 의견을 모아 타협점을 찾으면 결과 좋다. 운전 조심. 11,12,1,2월생 계획은 거창하나 손에 잡히지 않는다. 가능한 일부터 시작하라.



실력자를 만난다. 그의 식견과 통찰력을 배워라. 3,5,7,9월생 부모님 당부 가슴 깊이 새겨라. 지식보다 경험이 힘을 발휘한다. 6,8,10,12월생 높은 빌딩에 찾아갈 일이 생긴다. 거기서 고귀한 분을 뵙는다. 11,1,2,4월생 공직자 대길. 중대한 일을 수행한다.



까다로운 상대를 만난다. 정성만이 그를 감복시킨다. 3,5,7,9월생 추진중인 일 아직은 인정받지 못하나 고난 뒤에 승리잇게 하리라. 6,8,10,12월생 나의 가슴에 품은 인정받지 못하지만 결국 승리한다. 11,1,2,4월생 구해준 사람이 배신하려 한다. 그러나 주위사람들은 당신 편.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좌불안석. 떠나라. 3,5,7,9월생 공부좀 한답시고 도서관에 가서 소개팅 생각만 하고 있는 격. 6,8,10,12월생 직장 문제로 불안해 하고 있다. 장래성을 기준 삼아라. 11,1,2,4월생 처음 진행 방향이 잘못되어 미로를 헤매니 재출발하라.



이웃끼리 사소한 일로 다툴 가능성. 웃음으로 예방하라. 1,2,3,4월생 즐거운 모임이 많겠다. 음주 매너 잘 지켜라. 5,6,7,8월생 가까운 사람과 약간의 충돌. 서로 마주 앉아 차 한잔. 9,10,11,12월생 나의 출세를 가로막는 사람이 있다. 맞서지 말고 실력을 길러라.



또 한번 실패. 그러나 좋은 공부를 하고 있는 셈이다. 1,2,3,4월생 사랑하는 사람은 떠났지만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추억. 5,6,7,8월생 일복이 터졌다. 처음부터 너무 힘쓰지 말고, 계획을 세워라. 9,10,11,12월생 창업하려는 사람 관련 사업 정보를 꼼꼼히 수집할 기회.



일을 성사시켜 공을 세우나 시기하는 자가 많으니 뒤로 물러설 것. 1,2,3,4월생 회사나 학교를 대표하여 대회에 참가, 상을 받으나 구설수. 5,6,7,8월생 기혼자 임신 소식이 있으니 각별히 몸관리 할 것. 9,10,11,12월생 미결제 서류 등 재물에 관련된 일 마무리 된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급선무. 1,3,5,7월생 무리한 음주가 계속돼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4,6,8월생 친구의 도움으로 혼인이 성사될 수. 9,10,11,12월생 윗사람의 도움으로 취직이나 시험에 합격할 수있다. 서남쪽의 여행이 매우 좋다.



자기 스스로가 어려운 처지를 만들 수. 공손한 태도가 중요하다. 1,3,5,7월생 소망이 성사될 듯. 그러나 너무 큰 기대는 말아야 한다. 2,4,6,8월생 이성 문제가 삼각관계로 복잡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9,10,11,12월생 한직으로 물러앉음이 유리하다.



조급히 움직이지 말아야 후회를 면할 수 있다. 1,3,5,7월생 분수에 넘치는 투자를 절대삼가야 하고, 간장 질환을 조심. 2,4,6,8월생 성급한 직업변화를 생각하지 말고 능력을 충분히 길러야 한다. 9,10,11,12월생 부상 위험 있으니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난이도 : 쉬운 단계

						1	4	7
	7	2		4				
	5	1	3	8				
5			8		2			1
1	9						2	8
2			1		6			9
				1	9	8	6	
				6		5	7	
6	4	3						

난이도 : 어려운 단계

					4			1
	2				6		9	
1				2			3	
	4		5			6		
	8				1		2	
		1	9		2		8	
	1			6				2
	9		3				6	
3			2					

오늘의 스도쿠 정답

쉬운단계정답

2	1	9	8	5	7	3	4	6
4	7	5	3	6	2	9	1	8
3	6	8	9	1	4	5	2	7
9	5	4	6	7	1	8	3	2
8	2	6	4	3	5	7	9	1
1	3	7	2	9	8	6	5	4
6	9	2	7	8	3	1	4	5
5	8	3	1	4	6	2	7	9
7	4	1	5	2	9	4	6	3

어려운단계정답

5	4	9	8	1	2	7	6	3
2	9	4	3	5	7	1	6	8
5	1	8	4	6	9	3	7	2
3	8	7	2	4	9	1	5	6
4	2	5	1	7	6	3	8	9
9	1	6	3	8	5	2	4	7
7	6	3	5	9	4	8	2	1
6	3	2	9	7	1	5	4	8
1	5	2	4	3	8	6	9	7

유머

술자리에서 10불출

하나, 술 잘 안 먹고 안주만 먹는 넘

둘, 남의 술에 제 생색 내는 넘

...

셋, 술잔 잡고 잔소리만 하는 넘

넷, 술 먹다가 딴 좌석에 가는 넘

다섯, 술 먹고 따를 줄 모르는 넘

여섯, 상갓집 술 먹고 노래하는 넘

일곱, 잔칫술 먹고 우는 넘

여덟, 남의 술만 먹고 제 술 안 내는 넘

아홉, 남의 술자리에 친구 데리고 가는 넘

열, 술자리 모임에 축사 오래 하는 넘

병자호란



1636년 12월28일,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셴양에 집결한 12만 청나라 군대의 선봉대는 압록강을 건너 파죽지세로 조선 땅을 휩쓸고 내려왔다. 밤낮없이 아무 저항도 받지 않고 물밀 듯 내려온 청군은 셴양을 출발한 지 불과 열흘 만에 한양에 입성했다.
방어하기 좋은 강화도로 피하려던 인조(仁祖)는 문무백관에 둘러싸여 허겁지겁 남한산성으로 피신한다. 한양에서 강화로 가는 길은 이미 청군이 장악했기 때문이다. 12만 청군이 남한산성을 포위했다.

인조. 잘난 임금은 아닐지라도 나라님이 청군에 포위되어 바들바들 떨고 있다는 소식에 방방곡곡 관찰사들이 오합지졸 관군을 정비하여 남한산성으로 진격했다. 학가산 남향받이 산자락에 평화롭게 살아가던 선비촌에도 전쟁의 불똥이 떨어졌다. 집집마다 장정 한명씩 징집령이 떨어졌다. 류 대감의 외아들 류 진사가 새파랗게 질렸다. 류 대감이 벙어리 하인 춘삼이를 불러 앉혔다. “너는 오늘부터 류헌풍이다. 알았지?” 춘삼이는 날 때부터 말은 못하지만 말귀는 알아들었다.

춘삼이는 갑자기 류헌풍이 되어 경상도 관찰사 아래 근왕병으로 창을 들고 용감하게 나라님을 구하러 갔다. 몇날 며칠을 걸어 문경새재에 왔을 때 피비린 냄새가 코를 찌르고 기세 좋게 울려 퍼지던 함성은 북풍 된바람에 흔적 없이 사라졌다. 청군 별동대의 고함이 밤공기를 찢어놓았다. 달빛에 칼날이 번쩍이고 아비규환과 울부짖음만이 새재를 덮었다.

바위틈에 처박혀 낙엽을 덮고 덜렁거리는 왼팔을 넝쿨로 묶었다. 방방곡곡에서 각도의 관찰사가 군대를 끌어모으고 부랴부랴 징집하여 오합지졸을 이끌고 나라님을 구하겠다고 남한산성을 향했지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리멸렬 흩어졌다. 청태종 홍타이지는 남한산성을 포위만 하고 있었지 서둘러 공격하지 않았다. 성안에 비축 식량이 얼마 남았는지 손금 보듯이 훤했다.

1637년 2월24일,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인조는 성을 나와 삼전도에서 홍타이지 앞에 꿇어앉아 이마를 땅에 찧는 굴욕을 당했다. 전쟁이 끝났다. 벙어리 춘삼이는 설상가상 외팔이가 되어 선비촌 류 대감댁으로 돌아왔다. 가짜 류헌풍이 돌아왔는데 진짜 류헌풍이 보이지 않았다. 점령군 청군은 조선팔도를 뒤져 약탈을 일삼아 반반한 젊은 여자는 겁탈한 후 청나라로 데려가고 남정네는 잡아서 짐꾼으로 부려 먹다가 역시 청나라로 데려가 노예로 팔았다. 류 대감의 아들 류헌풍은 집에서 십여리나 떨어진 내성천 가 절벽 동굴에 숨었다. 육포와 굴비 명태를 걸어놓고 밥을 손수 지어 먹었다.

류 대감 며느리, 류헌풍의 처 숙정댁은 아침에 일어나 들기름에 절어 있는 검댕으로 얼굴을 문지르고 머리를 풀어 짚북데기를 덮어쓰는 게 화장이다. 동굴에서 류헌풍 부탁을 들은 춘삼이가 숙정 마님에게 닭백숙을 해서 손수 들고 오라는 말을 전했다. 이튿날 숙정댁은 씨암탉 백숙을 싸 들고 몰래몰래 몸을 숨겨 동굴로 갔다. 류헌풍이 얼굴의 검댕을 씻고 오라 일렀다. 내성천으로 내려가 얼굴을 씻고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졌다. 그렇게 대낮에 부부가 피란처 동굴 속에서 만났다.

빈 그릇을 싸 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숙정댁이 이번에는 청군에 붙잡혔다. 양반집에서 화초처럼 자라 류씨댁에 시집온 숙정댁은 생사기로에서 의외로 강단이 있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 청군 타타라에게 이끌려 셴양으로 끌려갔다. 적으로 만났지만 청나라로 가는 길에 숙정댁을 챙겨줄 때도 있었다. 물을 건널 때 신발을 벗고 숙정댁을 업기도 하고 식사할 때 맛있는 반찬을 먼저 숙정댁 입에 넣어줬다.

셴양에서 타타라는 꽤 높은 계급의 군인으로 본처가 있었다. 숙정댁은 첩이 되었지만 살림집도 번듯했다. 6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타타라가 전사하자 타타라의 아버지는 묵직한 전대를 주며 고향으로 돌아가라 일렀다. 일곱살 난 딸의 손을 잡고 두 달 만에 학가산 자락 집으로 돌아왔더니 모두가 동짓달 서릿발처럼 싸늘했다.

남편 류헌풍은 새장가를 갔다. 사람들은 숙정댁을 손가락질했다. 그나저나 일곱살 고운 딸이 류씨네 딸인지 타타라의 딸인지 알 수가 없다. 어느 날 숙정댁은 딸과 벙어리 외팔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자취를 감췄다.

로데오 MART



한국식품전문
주문배달전문

본 점 2433-9015
2호점 2221-5364
3호점 2367-0137
카톡/왓쌥주문 3071-4613

